

“초고령사회, 한국교회 선교전략 패러다임 전환 필요”

2024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보장정책포럼, 3일 나사렛대학교에서 개최

2024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보장정책포럼이 3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 경관관에서 '초고령사회 교회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1부 개회예배는 윤병성 목사(사회복지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김병천 목사(예성사회복지부장)의 기도, 윤문기 목사(나사렛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이정수 목사(예성사회복지위원장)의 광고, 윤문기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마 25:4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윤문기 목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현실 속에서 노인문제는 심각한 소외계층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본문에서)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토론이 노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류승동 목사 “시니어 목회의 교단이 지교회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재를 만들어 교회에 제공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니어 목회 지도자 지침서와 워크북을 만들게 되었다”며 “낸 목회트렌드 1위가 노인목회이다. 그만큼 지금의 시대적 요청이 교회에 노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이며, 오늘 포럼이 3성(예성·기성·나사렛)의 목회의 집합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축하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만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를 주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경수 총장은 “3성은 성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모인 기관들이다. 여러 메시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성결이라 생각한다”며 “하나의 사회복지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성결이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한성연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을 잘 계승발전시켜서 우리 다음세대에 넘겨 줄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2부 발표회는 왕수일 목사(기성



2024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사회복지정책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장요한 기자

사회복지부장)의 사회로, 윤예숙 목사(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의 ‘초고령사회 교회의 역할과 방향’ 주제의 발표, 질의응답, 사례 발표, 각 세션의 질의응답,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노인복지 목회의 필요성

윤예숙 목사는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사회란 전 국민의 20%가 노인(65세 이상)이라는 의미”라며 “인구 고령화 현상은 국가의 재정과 금융, 주택시장, 산업구조, 문화, 일상의 생활, 고용정책, 가족, 의료, 연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

해서다. 이제 교회의 선교전략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에 발을 맞추어 목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역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여 선교적 체질을 잃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고령사회에 교회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 맞춰 목회나 선교전략이 변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노인복지목회의 당위성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는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둘째로 시대적 요청이며, 셋째로 지역사회의 요청이며, 넷째로 선교전략에 부합한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교회의 역할은?

윤 목사는 “초고령사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먼저,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에 교회가 관심을 갖춰야 하며, 둘째로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셋째로 교회 내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넷째로 지역 내 복지관련 시설 등을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고, 다섯째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인복지 목회를 위한 선형과제로 먼저,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성경에서의 노인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로 노인복지 목회의 실정에 따른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셋째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인복지 목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첫째, 노인복지 목회자는 전문성을 있어야 하며, 둘째로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사회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넷째로 헌신적 마음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로 지속적인 노력, 꾸준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복지 목회의 방향은 첫째,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둘째로

노년부를 신설해 노년부 교사를 임명하고, 셋째로 노년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 및 장소를 준비유지하고, 넷째로 노인성도의 신체, 정서를 지원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섯째로 국가의 노인복지정책과 보조를 맞춰 국비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목회는 남이 있는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고 의미 있게 지낸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감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목회”라며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노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상황 속에서 노인복지 목회를 통한 한국교회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례발표에는 ▲이계삼 목사(나사렛대학교 특임교수, 사회복지학 박사)가 ‘온누리사랑채 노인종합복지센터(온누리사랑교회) 노인복지 목회 비전’ ▲조이철 목사(기성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복지 목회’ ▲김장경 목사(예성 벨벳주간보호센터 대표)가 ‘주간보호센터를 통한 목회 사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행사는 왕준복 장로(나성평신도상담부회장)의 폐회 및 기도로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예장 통합 남선교회 창립 100주년 “새로운 100년 향해”

창립 기초헌 부흥사경회 열렸던 안동교회서 감사예배 드려

예장 통합(총회장 김영길 목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예식이 3일 경북도 안동시 안동교회에서 진행됐다.

예장 통합 측에 따르면 1917년 미국복장로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온 안대선 선교사는 한국 면려(勉勵)운동의 개척자로서 안동선교부에서 일하며 전국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다. 안동교회에서 12월 2-6

일 부흥사경회로 모인 것이 기초가 되어 1924년 12월 2-4일 기독교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전국조선인대회가 열렸으므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시작됐다.

총회는 “전국연합회는 초기부터 금주·금연 운동, 경건·절제 운동, 물산장려운동, 야학운영 등 신앙운동과 애국사회운동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안동교회에서의 감사예배 및 예식도 이 일환이다. 1부 감사예배 및 기념식, 2부 창립 10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 3부 비전 세미나 및 기념 음향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예장 통합 7개 지역연합회 전 회장단을 포함한 임원들과, 제108-109회 기 총회 임원, 전국장로연합회 임원, 여전

도회전국연합회 임원, 총회평신도위원회 임원, 교회학교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교회학교중고등부전국연합회 임원, 청년회전국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정성철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가 인도한 예배에선 김영창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직회장)가 기도했으며, 김종학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서기)의 성경봉독과 이투스찬양단(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찬양 후 김영길 총회장이 “하나님의 큰 군대, 남선교회(에스겔 37:7-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정 훈 목사(부총회장)가 했다.

이 밖에 안동 출신인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경경총회장을 비롯해 윤한진 장로(장로부총회장), 오경남 목사(총회평신도위원장)가 격려사를, 은정화 장로(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길근섭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장), 권기창 안동시장이 축사를 각각 전했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정성철 장로는 창립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본회는 지난 10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초석을 세우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지난 100년을 회고하여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 왔다”고 했다.

정 회장은 “특히 북한선교를 통해 평양에 복수교회를 헌당했고 러시아 선교, 필리핀 선교, 인도 선교 등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다”며 “이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70만 남선교회 회원들은 남선교회의 주어진 사명과 역사적식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음의 빛인 국가로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안에 있는 선교하는 백성으로 우리 남선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100년의 새로운 시작은 통회와 눈물의 자복하는 기도와 새로운 선교



기념촬영에 나선 참석자들의 모습. ©공동취재단

역사를 바라보며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선한 정치기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제 우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와 예식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며 한걸음 또 한걸음 묵묵히 꺾대를 향해 다시 걷는 것”이라며 “겉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사명을 이어받아 또 다른 100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도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생명으로 역동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이 생성되는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조물이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측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복음으로 인류의 영혼을 배불리고 구원의 기쁨이 퍼져 가는 선교의 가치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인터뷰] 디스미즈세이쇼 교회 한재국 선교사 >> 7면
한평우 목사 “전도사의 길, 화가의 길: 반 고흐” >> 22면

평택청북 세종 헤르메스

레포트 시설·병의원 선점하라!

평택 청북신도시 랜드마크 ‘세종 헤르메스’

- GX룸
- 수영장
- 시우나
- 골프연습장
- 병의원
- 피트니스센터
- 사무실
- 병의원
- 병의원

주차대수 6백여대 넉넉한 주차공간

인근 아파트, 주택, 산업단지 고정수요 탄탄

바로 앞 13만평 규모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12월 개통 예정

12월 준공예정 평택 최중심 프리미엄 입지를 소유하라!

문의 1800-0041

“복음 통일로 북한에 자유와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컨퍼런스, 방콕서 복음통일 비전 선포
다음 세대와 복음통일 위한 방안 모색하며 3일간 진행
탈북민 목회자와 청년들의 간증, 미술 전시 및 공연 이어져

“복음 통일을 향한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고,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정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동족교회(대표 박상원 목사)와 글로벌복음통일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컨퍼런스가 얼마 전 3일 동안 태국 방콕한인연합교회(담임 신상태

목사)에서 열렸다. “디아스포라 복음 통일 연합 방안”,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북한 선교 전문가들을 비롯해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및 한인 1.5세 2세 청년들이 참여해 복음의 통일의 전략을 나눴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으로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공유했다.
컨퍼런스는 임현수 목사와 탈북민 목회자 강철호, 온성도 목사의 강연을 비롯해 영어권 2세 청년들이 최우리 목사(시



컨퍼런스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애틀베다니교회), 마크 조 선교사(레츠고 코리아 대표) 등이 나서 한반도 복음 통일의 비전을 선포하며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북

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편지와 사연들이 소개돼 큰 도전을 되기도 했다. 특히 탈북 신학생들과 탈북민들이 감사로 나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복음 통일이 멀리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



조별 토의 및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미술작가 박지혜 씨의 통일을 주제로 한 관련 작품 전시와 시애틀에 출연한 (단장 최사내 교수)의 국악 찬양 공연도 큰 호응을 얻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상원 목사는 “태국에서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

과 기도로 해외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필요성과 사명이 깊어 이해하고, 우리의 남겨진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신앙생활 중심에 ‘말씀묵상’ 놓고 모든 목회 구조 단순화”

지형은 목사, 제18차 미래교회포럼에서 사례 발표



미래교회포럼(대표 권오현 목사)이 2일 오후부터 3일 정오까지 천안 하나교회에서 제18차 미래교회포럼을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포럼 첫날, 행사는 개회 인사 및 사례 발표, 외부 주제특강, 내부 사례 발표 및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 인사 및 사례 발표에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한목협 대표)가 “말씀살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 목사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로 젊은이 선교단체들에서 하던 신앙 훈련인 큐티가 한국에서 제도권 교회로 들어온 시기가 1974년경이었다. 교회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큐티를 배웠다.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났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50년, 목회자로서 40년을 말씀묵상(큐티)을 하면서 살아왔다. 신학대학과 대학원 시절,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삶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무던히 탐구했다”고 했다.

그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말씀과 복에 관한 가르침이 명백하다. 먼저, 성경의 처음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다. 그 세상이 죄악으로 망가졌다. 성경의 메시지가 목적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의 복을 회복하는 길이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시편의 첫 장은 서론적 결론이다. 복 있는 사람이 그 주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초기에 성경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신앙의 심장이었다. 사경회(查經會) 곧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모임이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 시대에 아주 강력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렇고 이후 역사에서 중요한 때마다 말씀이 기도와 아우라지는 것, 곧 말씀 묵상이 건강한 교회 흐름의 중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락성결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지 18년이 되는 2022년에 목회의 태

도와 방향의 변화를 선언했다. 말씀묵상의 토대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동네세메출성경으로 전교인이 날마다 말씀묵상을 하고 말씀묵상 소그룹(7인소그룹)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강조한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묵상’을 놓고 모든 목회 구조를 단순화 시켜가고 있다. 교인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묵상을 하고 ‘7인소그룹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외부 주제 특강 시간에 이상화 목사(서현교회,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대표)가 ‘격변하는 시대 속의 소그룹목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점점 어려움을 벗어나 소외에서 공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 외로움의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각하며 OECD 국가 중 삶의 질 인식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끝난 현시점,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며 한국 사람들은 진밀하고 내적관계가 조밀한 인간관계를 갈망하며 여겨지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자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성도들의 신앙활동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졌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러나 성인예배와 교회학교는 80%에서 회복이 멈춘 상태다. 또한, 헌금을 제외한 교회 주요사역이 회복률 8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출석 교인 수 증가 예상 교회의 특징은 500명 이상 중대형교회와 소그룹 잘되고 교회로 전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목회자들은 향후 목회 중점세대로 3040세대와 모든 세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회자들은 코로나19를 벗어난 이후 강화되어야 할 중점목회 사역 1순위와 2순위로 ‘현장예배 강화’와 ‘소그룹사역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그룹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신교인 성도 그리고 소그룹 참석자가 한국사회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사회적 고립도 평균 지수보다 훨씬 낮다는 것과 ‘2023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조사’결과 소그룹사역이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교회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 대부분은 소그룹사역을 통해 감동과 신앙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그룹 참여 중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섬김, 개인 경건생활, 제자의 삶, 신앙성장 전반에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소그룹사역을 진행하는 교회가 교회성장과 수적 부흥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역동적인 소그룹사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정기적인 리더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주 리더교육을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소그룹리더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지만, 소그룹 멤버들은 무엇보다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를 기대한다. 또한, 소그룹 리더들은 훈련받고 싶어하며 ‘리더로서의 섬김 자세를 구체적으로 교육받고 싶어한다. 소그룹교회 목회자들도 소그룹리더를 향한 체계적 훈련시스템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소그룹편성에 대해 고민할 때 연령대별로 소그룹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적정한 연령간격은 5-10세로 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멤버들이 모이는 취향 소그룹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소그룹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교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소그룹의 역동성과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소그룹 참여자들은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모임 시에 멤버들 사이의 진밀함과 깊은 교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이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는 소그룹은 서로의 이름

을 알며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도 가급적 소외되지 않는 것이 좋다. 소그룹 멤버들은 각자의 삶에 꼭 빠져있다가 영적 모임인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그룹 시작부터 이 영적 공동체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소그룹의 필수 요소인 말씀 나눔, 교제, 사역, 기도를 균형있게 강조하며 소그룹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그룹을 마칠 때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정기적인 을 통해 계속 성장하며 매주 교회가 제공하는 교재를 반드시 숙지하고 소그룹 멤버들을 만나고 소그룹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소그룹에 리더감이 있는지 찾고, 격려하고, 세우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럼은 이어 김진양 부대표(목회 데이터연구소)가 ‘초고령 사회와 시니어 목회, 이상갑 목사(산본교회, 청년사역연구소장)가 ‘2030목회 3040목회(30대를 잡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내부 사례 발표 및 나눔에서 윤영근 목사(할렐루야교회 시니어목회연구소)가 ‘시니어 목회사역, 이정규 목사(시광교회)가 ‘2030 목회(30대를 잡아라)’, 구빈건 목사(사랑이꽃피는교회)가 ‘사랑의 소그룹을 위한 공동체 사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승연 기자

경기광주, 위대한 변화의 시작

지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Super Solution City -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DREAM CITY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경기광주 최초 1,902세대 대단지 아파트

합리적인 가격 800만원대~

발코니 확장무상! 無이자 혜택!

멀티교통 | 경기광주역 인접, 경기광주 IC, 3번 국도 등 사통팔달 쾌속교통
안심학군 |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부지 등 안심 교육환경
중심생활 | 이마트, 롯데시네마, 생령그린공원(26년 준공예정) 등 다 갖춘 주거환경
미래가치 | 경안1고 신설(예정), 광주중합운동장(25년 준공예정)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예정)

031.714.1119

59㎡~100㎡ | 총1,902세대

세입자 드림아우징 | 허한탄에 광주역 내집마련 위원회 | 신익서 (주)무궁화신탁

본 포스트는 DR.CC, 임팩트, 엔비지 등은 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상가 현황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업무수행 중 변경 및 차등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는 무관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쓸 때 부흥하게 하실 것”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개최

(사)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이사장 윤석전 목사, 이하 기선연) 선교축제가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연세중앙교회(담임 윤석전 목사) 안디옥성전에서 ‘함께 가자! 구령의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김태욱 목사(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김중수 목사(강원 지회장, 가나교회)의 기도, 고재욱 목사(연합회장의 환영사, 박재홍 목사(서울지회 총무, 라이프미션교회)의 성경봉독, 대전지회사모회의 특송, 고대원 목사(부울경 지회장, 산성중앙교회)의 설교, 허도량 목사(경기북부 지회장, 파주번영교회)의 인도의 합심기도, 이황규 목사(교육국장, 주우리교회)의 구호제창,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환영사를 전한 연합회장 고재욱 목사는 “오직 예수와 구령의 정신으로 무장한 목사님들을 통해 기선연을 설립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며 “우리를 목회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오직 구령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영혼 구원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엡 4: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고대원 목사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타락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어진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절대 능력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류는 생령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며 “그러나 음부의 세력으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분열되었다. 특별히 여기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분열되었는데, 신사참배와 신학적 분쟁, 성서비평, WCC 문제, 지역갈등 등의 문제로 분열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싸움으로 교단과 교파가 많이 분열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참석자 단체 사진. ©장요한 기자

내가 아닌 성령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주의 종들을 격정하여 권면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기선연을 통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에 기선연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와 격려사 순서가 진행됐

다. 먼저, 축사를 전한 신평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는 “목회는 목사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도 같이 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바닷물 2%가 바닷물을 섞지 않게 하며, 1%의 누룩이 발효시킨다”며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손태진 목사(대한제일교회)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육신의 때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모든 회원, 목회, 모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재곤 장로(주티지아이 대표)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장요한 기자

는 “먼저, 선교는 기독교의 본질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기에 기선연의 설립과 축제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둘째로 연합회의를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차이를 극복하고, 셋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격려사를 전한 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증경총회장)는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섬김과 내어놓음으로 서로가 잘 된다면 우리의 선교가 최후의 선교가 될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음 목사(가침 총회장)는 “윤석전 목사님을 통해 도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목사님이 사시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목숨 거는,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모두가 받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해지는 교회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배는 윤석전 목사의 기업회원인사, 조만식 목사(분회 사무총장)의 광고, 윤석전 목사의 인사 및 축도 순서로 마쳤다. 윤석전 목사는 “주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복음을 위한 섬김의 손길을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미라 집사의 사회와 최인수 목사(분회 선교국장)의 시작기도로 진행된 2부 콘서트에는 힐웨이즈, 황규승 목사가 출연해 함께 했으며, 조은철 목사(총은교회)의 마침기도, 강태일 집사의 진행의 경품추첨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는 윤석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마약 중독 늘고 있지만 치료·재활 환경은 부족”

제주한라대 답곡 2차

마약류 중독예방 세미나 열려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가 대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활동단체인 답곡(DAPCOC, 이사장 두상달 장로)과 함께 지난 11월 30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2차 마약류 중독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마약류 중독 회복자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의 양선영 소장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회복과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후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유토론 있었고, 뉴스포츠진흥원의 ‘롤바운스볼’ 액티비티가 이어졌다.

양선영 소장은 “현재 마약류 중독자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은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한국 사회 분위기가 여성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어떤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 제주한라대 답곡 참가자는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뻔한 내용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중독의 위험성에 대



제주한라대 답곡 2차 마약류 중독예방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답곡

해 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며 지루한 교육이 아닌 기억에 남는 즐거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뉴스포츠진흥원이 제주한라대 답곡에 기증한 ‘롤바운스볼’ 게임이 진행됐다. 제주한라대 답곡 참가자는 “롤바운스볼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 팀으로 활동하니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마약예방 봉사활동을 할 때 이 게임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202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사범 수는 2022년 16.66명으로, 2018년 8.39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증가율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가며 관광객들의 마약류 투약 사례

가 적발되고 있다고 답곡은 밝혔다.

답곡의 고문단장인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가이다. 마약류 중독은 단 한 번으로 시작된다. 마약을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이해하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지역 예방교육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곡은 제주한라대 답곡을 기점으로 제주지역의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3일 오후 6시에 제주한라대 답곡 3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한가협,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시카고서 ‘디셈버퍼스트’ 개최

2024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 대표 김지연)가 최근 시카고 하이포인트한인교회에서 달라스 및 사카고 일대의 한인들과 함께 청소년 에이즈 예방 캠페인 ‘디셈버퍼스트(DecemberFirst)’를 개최했다.

‘디셈버퍼스트’는 한가협이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번째 접어든 캠페인으로, 금년에는 시카고 하이포인트한인교회의 협력으로 현지 한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가협은 본 행사에서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요약·발표하여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Q&A,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가 되고 있는 남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도서 소개, 바른 성기초관 함양을 돕는 한가협 매거진 및 에이즈 예방 부채 무료 배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디셈버퍼스트에 참여한 현지 청소년 A

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길 때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이 오는지 새삼 절감했다”며 “동성 간 성접촉을 인연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세계 에이즈의 날 하루만이라도 바른 예방책이 알려지고 에이즈 감염의 주된 전파경로인 남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가 전체 인구의 8%라고 발표했다. 불과 10년 전 2-3%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많이 증가한 것이다. A군은 “성병을 막는 가장 1차적 방법은 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성행동을 부추기는 위험한 성교육의 문제점도 세계 에이즈의 날에 함께 다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행사를 마무리한 한가협 대표 김지연 약사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뜻밖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다.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청소년의 90% 이상이 남성



미주 시카고에서 열린 디셈버퍼스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한가협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매우 놀라셨다”며 “위험한 성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매우 보람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12월 1일로 지정된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영국에서 시작해 약 40년간 국제적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기념되고 있다. 한가협은 그동안 국내에서 본 행사를 개최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본 행사를 개최했다. 노형구 기자

LOVE. RESPECT. TOGETHER.

당신 곁에서 새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c AEKYUNG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포용

미국 크리스천데일인턴셔널(CDI)은 "추가적 필요 블로그파더(the additional needs blogfather)"로 알려진 마크 아널드(Mark Arnold)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나눴다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추가적 필요'가 있다고 말할 사람들과 비유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며,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Q. 간단히 본인과 가족,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크 아널드입니다. 제 아내 클레어와 결혼했으며, 딸 피비(25)는 결혼하여 Friends International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다. 제 아들 제임스(22)는 자폐 스펙트럼, 학습 장애, 간질, 불안증 등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가 하는 많은 일의 영감과 동력이 되고 있다.

저는 영국의 어린아·청소년 기독교 단체 Urban Saints에서 추가적 필요 사역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교회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포함시키고, 지원

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를 위해 훈련 개발, 강연, 책과 블로그 집필, 미디어 활동,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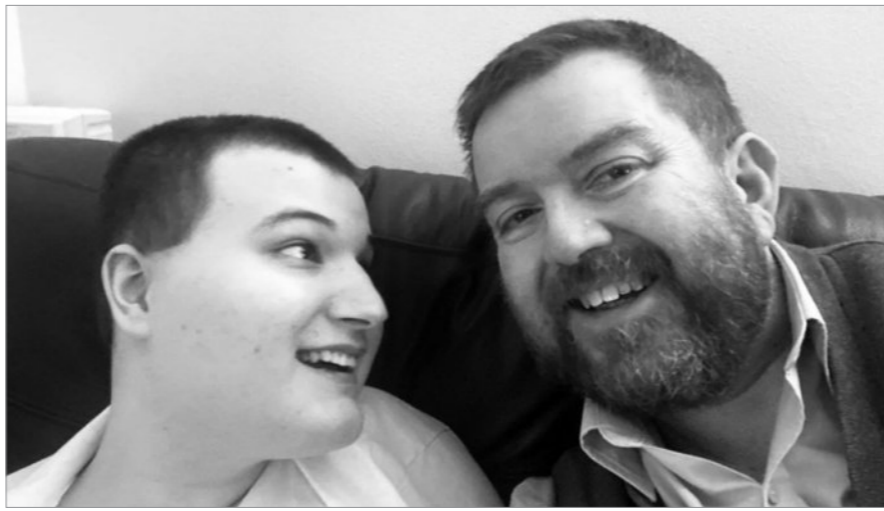
저는 추가적 필요 연합(Additional Needs Alliance)의 공동 창립자로, 여기에는 아이들과 청소년, 가족을 위한 사역자, 실무자, 부모 등이 수천 명 참여하고 있다.

The Dads' Fire Circle이라는 모임을 시작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서로의 여정을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Q. '특별한 필요' 또는 '추가적 필요'란 무엇을 의미하나?

전 세계적으로 약 5명 중 1명의 어린이가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를 가진 어린이, 그리고 또래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영국에서는 '추가적 필요'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며, 때로는 추가 학습 필요(Additional Learning Needs) 또는 추가



마크 아널드씨(오른쪽)와 그의 아들 제임스. ©Mark Arnold

지원 필요(Additional Support Needs)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주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한다.

Q. 교회에서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모든 아이가 다르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물리적, 프로그램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전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겠다.

물리적 어려움: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

이가 교회 건물에 들어가고 이동하기가 어렵다. 장애인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소음이 너무 크거나 조명이 너무 밝아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프로그램상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변경, 준비 없이 참여를 요청받는 상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끄럽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만 있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환영팀의 과도한 포용이 아이들에게 불편하거나 트

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눈을 마주치거나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기대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Q.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과 가족을 잘 지원하는 교회의 사례가 있는가?

영국 세인트 앨번스에 위치한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Church)는 좋은 사례다. 이 교회는 '포용 챔피언(Inclusion Champion)'이라는 역할을 도입해, 모든 아이들을 교회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베서너라는 아이의 가족은 그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스스로 다음 예배 시간을 묻는다고 말했다.

Q. 영국과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영국 교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를 가지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관점이 드물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국 내 일부 교회는 이런 아이들과 가족을 두려움이나 오해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는 10년 전만 해도 큰 비율을 차지했

으나, 이제는 소수에 불과하다.

Q. 교회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더 잘 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직접 묻는 것이다. 많은 경우, 교회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포용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만들곤 한다. 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교회 내에서 이를 책임질 '포용 챔피언'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 아이들이 말한 필요와 제안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Q. 교회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역 중에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쏟으셨고, 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마가복음 10:46-52)라고 물으셨듯, 우리도 아이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귀 기울여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교회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 최승연 기자

대림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비영리 단체 Come and See의 글로벌 홍보대사

인 스탠 안츠(Stan Jantz) 작가의 기고 글인 '대림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예수님의 도착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Advent past, present and future: Each of Jesus' arrivals matters)를 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안츠 작가는 종교 드라마 "선택받은 자"(The Chosen)를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인 Come and See의 글로벌 홍보대사다. 그는 기독교 출판 업계에서 리더십 직책을 역임한 것 외에도 75권의 책을 집필하거나 공동 집필했으며, 4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만약 백화점 스피커나 광고에서 앤디 윌리엄스(Andy Williams)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직 듣지 않았다면, 곧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아마 따라 부르거나 적어도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누구나 인정하는 맛지고 즐거운 기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때로는 성탄절의 기쁨이 실망과 우울로 얼룩지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탄절은 왜 한 순간 기쁨을 주면서도 다른 순간에는 절망을 불러일으킬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미리 되새기기보다는, 우리는 성탄절이 그저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기다리며, 화려한 장식, 전통, 만찬, 그리고 모든 일을 제때 끝내려는 소란 속에서 압도당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성탄절의 의미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곤 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즐기면서 그 참된 의미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대림절(Advent)이다. 대림절은 성탄절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대림절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왔으며, 이는 '오다' 또는 '도착'을 의미한다. 성탄절과 관련하여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인 대림절 축하 방식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매주 일요일에 하나씩 촛불을 켜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이 전통을 좋아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도래를 묵상하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대림절: 과거**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고, 천사들의 군대가 목자들에게 알렸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세상으로의 첫 번째 도래는 대림절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대림절의 과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첫 번째 도래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림절은 이 첫 번째 도래에서 멈추지 않는다.

◆**대림절: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은 깨진 자들과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오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현재 하늘에 계신다. 그곳에서, 그분은 모든 이의 마음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실 기뻐하시며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와진 적이 있었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을 다룬 드라마인 '선택받은 자(The Chosen)'에서 아름답고 감동하게 묘사된다. 저는 이 시리즈의 제작과 배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컴 앤 시(Come and See)'에서 일하며 이 장면을 여



스탠 안츠(Stan Jantz) 작가. ©하베스트하우스

러 번 보았다. 매년 강렬한 감정이 쏟아지는 것을 느낀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으로 내린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를 고치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다. 그러나 육체적 치유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이유는 단지 그의 몸만 마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 또한 마비되고 깨져 있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성탄의 결과는 용서이며, 성탄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처럼 대림절의 현재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Joy to the World"의 가사처럼, "모든 마음이 그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면 그분은 가까이 오신다.

◆**대림절: 미래**

라틴어 adventus의 번역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Parousia)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실제로, 예수님의 첫 번째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도래도 예언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대림절, 각각의 도래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기억하며,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도래를 되새기고, 두 번째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대림절을 맞이하길 바란다. 최승연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시험 기간 후, 판매처 제품 구매 시, 2023.01.25~2023.03.10 (일) 00:00:00 ~ 2023.03.10 (일) 23:59:59 까지]

부교역자 서열 문화... "없어져야" 49% "필요하다" 47%

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자 825명 대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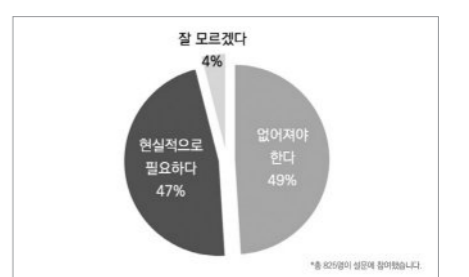
목회자들이 교회 부교역자 사이의 서열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구독자 중 목회자(부목사 포함) 8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교역자

사이의 서열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없어져야 한다' 49%,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4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4%.

목데연은 "다 같은 동역자로서 서열 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에 서열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 목회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부교역자 사이의 서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플루티스트에서 선교사로... 송솔나무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명

전쟁 난민 위한 구호와 음악... '희망의 빛' 전하다

“사명은 목숨도, 돈도, 내가 좋아하는 것마저 뛰어넘어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플루티스트이자 선교사로 활동 중인 송솔나무는 이렇게 자신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을 정의한다. 그에게 사명은 단순한 직업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어야 하는 의무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을 거쳐 카네기홀과 링컨센터에서 연주하며 화려한 음악 경력을 쌓아온 그는 일본에서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접한 뒤 난민 구호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령이 SNS를 통해 전쟁 난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송 선교사는 여러 국내 NGO 단체들과 협력하며 폴란드로 향해 난민촌의 상황을 파악했고, 이후 직접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물자 후송과 난민 지원을 시작했다. 그는 주로 남동부 최전방인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하르키우 등에서 활동하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발길을 옮겼다.

“처음엔 물자를 후송하고 부상병과 난민들을 국경으로 데려오는 역할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음악 연주를 시작하게



송솔나무 선교사 ©송솔나무재단

됐습니다.” 송 선교사는 방공호에서 난민 아이들 앞에서 연주했던 순간을 “카네기홀이나 링컨센터보다 더 영광된 무대”로 회상하며, 이 경험이 음악가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을 셀 수 없이 오가며 난민과 전쟁 피해자를 돕는 데 여력을 두 번 재발급받아야 했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서 연주 중인 송솔나무 선교사의 모습. ©송솔나무재단

교사는 올해 5월 비영리 사단법인 ‘솔나무’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송 선교사는 올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할 계획이다. 그는 최전방에 있는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전쟁 고아들이 모인 고아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쟁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고민하고 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200만 명이 넘는 국제 자원봉사자가 우리를 도왔던 역사를 잊어서 안 됩니다.” 송솔나무는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이 자신의 사명이자 축복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이나래 기자

“충청 대학들에서의 신천지 활동 경악... 발본색원 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안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충남대에서 신천지가 수년

간 동아리 전체의 임원진을 독식하면서 그 영향력을 미쳐온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신천지는 충남대에서 총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해 그 활동력을 넓혀 왔는데, 학생들은 신천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의 포교전략에 넘어가, 이 시대에 가장 지독한 이단에 빠졌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신천지의 이런 악행은 충남대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또 과거에는 역시 국립대학인 공주대와 전남대를 포교 대상으로 삼았던 일도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신천지가 대학의 청년들까지 자신들의 영향 아래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의 꿈 많고 건강해야 할 대학 생활을 망치는 꼴이 된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그 실태를 낱알이

파악해 국립대학교가 불건전한 이단들의 포교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야 한다. 이단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지게 할 뿐, 건전한 종교 생활에 혜택을 놓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렵게 양육해 대학에 보내는 것은 그들이 한 인격

체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 이웃과 가정을 위해 선한 기여를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였는바, 신천지의 문제점은 그동안 저들에게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는가는 탈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대학까지 파고 들어가 젊은 청년들의 일생과 영혼까지 망가트리려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 각 대학 측과 학부모들과 학생회 측과 지역 기독교연합회 측이 공동

으로 조사해, 이단들의 발호(跋扈)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들도 이런 이단의 활동으로 기존의 건전한 동아리, 종교동아리, 그 중에서도 기독교동아리의 정상적 활동을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은 종말의 때이다. 그런 현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현상으로는 미혹과 배교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시기”라며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 창립 10주년 순례

생명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일치 의 여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과직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생명평화와 평화의 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를 진행했다.

한국신앙과직제는 2006년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를 다지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일치순례를 이어왔다. 이번 순례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을 점검하고,



‘생명평화와 평화의 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순례’ 기념촬영.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 직제협의회

생명평화를 위한 공동의 기도와 실천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순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주요 거점인 로마 교황청, 세계교회협의회(WCC), 그리고 튀르키

에 정교회 세계총대주교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순례단은 한국신앙과 직제 공동의장인 이용훈 주교와 김종생 NCKK 총무를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등의 지도자 20명으로 꾸려졌다.

순례단은 지난 11월 26일 로마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추진부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하며 순례를 시작했다. 이후 제네바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12월 1일 튀르키예의 성 게르기오스 성당에서 열린 성만찬 예배와 바로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와의 알현을 통해 공식적인 순례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나래 기자

성주군 성산회전교차로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성탄절과 새해 맞아 희망 메시지 전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회전교차로에 성탄절을 앞두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다. 성주군은 3일 이병환 성주군수,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 한유도 성주기독교연합회장,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리 점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높이 9m, 폭 8m로 웅장하게 설치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히며 성주군의 밤을 파스하게 채울

예정이다. 이번 트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등식에서 이병환 성주군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까지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며, 트리가 지역 사회에 따뜻함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번 대형 트리는 지역 주민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해의 희망을 나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으



성주읍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성탄 트리 ©성주군

며, 한 달 이상 성주군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나래 기자

창원시청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성탄과 새해 앞두고 희망의 빛 밝혀

경남 창원시는 최근 시청 앞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창원시기독교연합회와 미산기독교연합회가 주최했으며, 홍남표 창원시장, 허성무 국회의원,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과 기독교인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 약 17.4m에 이르고, 폭 47m에 걸쳐 펼쳐지는 커튼식 형태로 제작됐다. 수천 개의 특수 LED 조명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점등식에서 “오늘 점등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험벗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모닥불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허성무 국회의원,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고 있다. ©창원시청

열다섯 헤진이의 밤은 진한 우정 이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함께 나누는 밥 한 끼로
우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심으로 건강해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합니다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 농협네트웍스 농협자산관리회사 농협정보시스템 농협미래니스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휴 농협환경 농협메디칼 농우바이오 농협에코그린 농협양곡 농협농산 농협식품 NH농협우유 농협특목농협사료 농협약수 농협TMR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보험 NH농협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저축은행 NH신설 NH저축저신은행

“천상교회의 어울림을 연습하는 두 교회 이야기”

나눔교회, 20년간 리지교회(The Ridge Church)와 성금요일 예배·추수감사절 만찬 함께해

캐롤트에 위치한 나눔교회가 지난 24일 리지교회(The Ridge Church)와 추수감사주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250여 명이 참석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눴다.

나눔교회와 리지교회는 지난 20년간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와 추수감사절 만찬을 함께하며 주 안에서 연합하고 있다. 나눔교회 초대 선임목회자인 안지영 목사는 “나눔교회는 한인교회가 미국 지역 사회 안에서 고립된 섬과 같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하며 시작됐다. 이런 고민 끝에 나눔교회 예배의 장

소를 허락해준 리지교회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역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매년 시행하는 두 번의 연합행사는 나눔교회와 리지교회, 두 교회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안 목사는 “언어와 문화, 정서가 다른 교회들이 가까이 교제하고 동역하는 것이 이 땅에서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될 것”이라며 “우리 두 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천상교회에서 가능한 어울림을 미리 경험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



캐롤트에 위치한 나눔교회가 지난 24일 리지교회(The Ridge Church)와 추수감사주일 만찬을 가졌다. ©TCN

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연습하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지교회 담임목사인 제리 워덤(Jerry

Witham) 목사는 이날 만찬에 앞서 “나눔교회와 리지 교회의 관계는 2005년에 나눔교회가 예배를 드릴 공간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만찬에서 나눔교회 김정섭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TCN

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다.

워덤 목사는 “우리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훨씬 깊은 의미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진정한 가족이 됐다. 함께 한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봉사의 기회, 그리고 매년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식사에 이르기까지, 리지교회는 나눔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했다.

올해 추수감사절 만찬은 지난 1월 나눔교회 선임목회자로 취임한 김정섭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김 목사는 “언어와 민족이 다르지만 지난 20년간 나눔교회와 리지교회가 한 공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며, 장차 온 민족과 방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다.”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제공

SNS 그림묵상, 알고보니 이단의 덫? “기독교 콘텐츠처럼 위장”

#인스타그램 ‘그림묵상’ 계정을 즐겨 보던 대학생 A양은 크게 놀랐다.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던 계정이 이단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양은 지인에게 이를 전해 듣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저장했던 그림을 삭제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단 계정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그림묵상, 카드뉴스, 숏폼영상 등을 통해 포교를 하는 이단 단체들이 늘고 있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말쑥 캘리그래피 등을 게시하는 한 계정. 알고보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과 계열의 홍보 계정이다. 게시물은 구원과의 교리가 담긴 설교 영상과 사역 내용이 교묘히 포함돼 있었다.



이단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 ©인스타그램 캡처

JMS는 최근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글들을 통해 포교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신천지는 청년들에게 인기인 리빙크루 관련 영상을 릴스(reels)로 제작해 포교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위아런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영상을 보면 ‘리빙 지체 교정’, ‘리빙의 기초’, ‘연차별 러너 특징’ 등 숏폼 영상이 게시돼 있다. 성경을 기반으로 진리, 봉사, 사

람을 실천하는 청년 자원봉사단체 소속 리빙크루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문제는 이런 이단 단체의 계정들이 언뜻 보면 일반 기독교 SNS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 계정에는 ‘말씀’, ‘성경’, ‘하나님’ 등 해시태그가 포함돼 있어, 기독교인들조차 무심코 콘텐츠를 접하기 쉽다. 게시된 그림 등만 보고는 파악이 힘들어 기독교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교인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SNS 등 플랫폼 다수가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포교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출처를 알기 어려운 계정은 주의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런 콘텐츠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 제공

캘리포니아 교회 목사, 무술로 도끼 든 침입자 제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가 추수감사절 아침 교회에 도끼를 들고 침입한 자를 무술로 제압하며 교회를 지켰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캘리포니아 엔티오크에 위치한 퍼스트 패밀리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체포됐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CP는 현지 당국에 따르면, 교회의 경비 시스템이 퍼스트 패밀리교회 담임목사인 닉 네베스(Nick Neves) 목사에게 침입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네베스 목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도끼로 교회의 창문을 깨고 있었으며 네베스 목사가 그를 저지하자, 용의자는 도망치는 대신 주차장에서 네베스 목사와 몸싸움을 벌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CP는 주짓수와 킥복싱 등 혼합 무술을 훈련받은 네베스 목사가 용의자를 제압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두었다

고 밝혔다.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베스 목사는 “멈추라고 소리치고 경찰이 오고 있다고 알렸지만, 그는 도망쳤고, 제가 그를 붙잡아 교회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훈련을 활용한 네베스는 침입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 않고 상황을 통제했다. 그는 “그를 땅에 눌러 제압했고, 그가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체력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엔티오크 경찰서는 SNS를 통해 네베스 목사의 용기를 치하하며 이 사건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묘사했다. 경찰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끼를 사용해 교회의 창문을 깨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교회는 일부 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닉 네베스(Nick Neves) 목사. ©Screen grab/YouTube/NBC Bay Area

네베스 목사는 이 침입 사건에 대해 “몇일만 더 일찍 왔더라면 축복받고 음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러나 대신 창문을 깨고 재산을 훼손하며 교회의 사역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CP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 라인댄스·탁구반 등 11개 클래스 무료 개강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 평생 교육원(원장 손현주 목사·사진)이 라인댄스·탁구반 등 11개 클래스를 개강하고 한인사회에 문을 활짝 열었다.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는 쿵글클래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를

비롯해, 컴퓨터 베이직 및 스마트폰 강좌(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라인댄스반(양초보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 중급반 매주 화요일 오후 4시~5시), 탁구 교실(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 하모니카 강습반, 베이스 기타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뜨개질반과 바느질반, 색소폰 클

래스, 기타 클래스 등이 개강을 앞두고 있다.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클래스가 회비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들도 재능 기부로 한인 사회를 섬기고 있다.

손현주 목사는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이 오셔서 부담 없이 즐겁게 배우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페더럴웨이 펠로우십센터는 현재 운영 및 준비 중인 강좌 이외에 다른 수업을 운영할 자원봉사 강사들도 찾고 있다.

관련 문의 전화 253) 508-8902
주소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김민선 기자

2024년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 주최 성탄 축하 연합 찬양예배



타코마 지역 한인교회 연합 성탄 축하 찬양예배가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 타코마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열린다.

성탄 축하 연합 찬양예배는 타코마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다.

이번 성탄 축하 연합예배는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최하고 타코마 목사회가 후원한다.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일본은 선교의 황금어장, 130여 년 전 일본에 진 복음의 빛 같아야”

한재국 일본 선교사 인터뷰

“일본은 누구나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독교 인구 0.3%의 어려운 현실을 불까요. 99.7%의 황금어장을 불까요? 복음의 그물을 어디로 던질 것인지 바라본다면, 종교를 좋아하는 일본이야말로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교회에서만 25년간 사역한 한재국 선교사(시미즈세이소 교회 담임)는 “일본교회에 재할력을 붙여넣기 위해 한국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 만큼, 역사와 정치를 초월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일본 영혼들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선교사의 인터뷰는 지난 11월 중순 세계선교연대(대표 최요한 목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38년간 일본선교 위한 오직 한 길

1986년 2월, 30세의 나이로 일본 땅을 밟은 한재국 선교사는 이제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일본에서 산 기간이 훨씬 길다. 38년 전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중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니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10년간 일본 한인교회에 집사로 있으면서 도쿄 베데스다교회 개척을 이끌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도쿄기독교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 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일본동맹기독교단에 속한 74년 전통의 일본인 교회인 도쿄의 시아나미치 교회에서 4년간 전도사로 섬겼다. 그리고 2004년 일본동맹기독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 2012년 3월까지 시아나미치 교회에서 제3대 담임목사로 목회했다. 이어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의 일본인 교회인 시미즈세이소(清水聖書) 교회에서 13년간 8대 담임목사로 목회하고 있다.

한 선교사는 일본인 목회뿐 아니라 재해구호 사역, 일본 한인선교사회 연합 사역, 일본교단과 한인 선교사들과의 기교 및 연합 사역 등 교회 안팎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한선협)의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아 한인 선교사들과 동북 지역에서 재해구호 사역을 했다. 또 동북일한국기독교신앙회복성화의 위원장으로 3차례 섬기며 센다이, 후쿠시마에서 쓰나미 이후 영적으로 침체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회복을 도왔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한선협 동일본 회장으로 있으면서 10년간 분리돼 있던 한선협과 재일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ACC)의 연합 과정에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기여했다. 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선교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지 선교는 현지교회가 중심이 되고 선교사들이 서포트 해야 화합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일본교회와의 연합에 앞서 한국 선교사들부터 연합의 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현재 목회하는 시미즈세이소 교회에서는 교회가 25년 동안 준비해 온 성전 건축에 올인하여, 부임 5년 만인 2017년 7월 말 새 성전을 봉헌했다. 이 외에도 한국CBMC 동경지회 지도목사로 10년 가까이 섬겨왔다.



한재국 선교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며 “역사와 정치를 초월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일본 영혼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국 선교사 제공

신을 좋아해서 신이 많은 나라, ‘참 신’ 예수 만나면 신앙생활 더 잘해 비기독교인 99.7%인 ‘황금어장’, 일본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 필요

◇복음화율 0.3% 일본의 선교 현황은?

한 선교사는 일본선교 현황에 대해 “민주주의 나라이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3%의 복음화율을 보인다”라며 “일본종교연합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현재, 총인구가 1억 2,435만 2,000명, 신도수가 8,723만 6,500명, 불교계가 8,324만 2,800명, 기독교인이 29만 5,000명”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선교가 쉽지 않은 사회적 상황으로는 일본의 정신 천황제(신도이즘) △서양종교에 대한 거부 현상(가톨릭 역사 △다신론 다종교 현상(신흥종교) △세속주의(물질만능주의, 기복신앙)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교회의 성장이 부진한 이유로 는 △고령화 △개인적 신앙 △지역적 신앙

△복음의 역동성 둔화 △리더십의 문제를 꼽았고, 일본 교인들의 교회 이탈 원인으로는 △본인의 신앙 확신 결여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 △주일 직장 출근과 학교 클럽 활동 △불신자와 결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조상숭배, 마츠리, 불교단가 등)를 꼽았다.

한 선교사는 “사면이 바다인 일본은 ‘와(和)’의 문화로, 공동생활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자신의 개성을 못 살린다”라며 “우리나라는 못이 튀어나오면 ‘저게 뭘까, 무엇을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은 못이 튀어나오면 안 보이게 박든지, 월등하게 튀어나와야 한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도 다 같이 믿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고 하

는데, 사실은 내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한대의 신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작은 인형이나 심지어 멀치 피리도 신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신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고, 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런 면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의 무덤’이 되어왔지만, ‘참 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 필요해

한재국 선교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99.7%를 보면 일본은 황금어장이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안 될 것이 뭐가 있나”라며 “그러나 각 나라의 민족성, 토양, 종교, 문화에 따라 선교 전략이 다른 것처럼, 일본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민족성은 변화를 싫어하고, 한국이 볼 때 느린 것 같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화의하고 철저히 준비한다. 또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책을 많이 읽는다”라며 “복음도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왜 신앙여행 중 가장 먼 곳이 머리카락부터 가슴까지 30cm라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맞는 일본 전도 및 선교 전략으로는 △일본 무목교회에 목사 파견(한국인 목사와 선교사 양성)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와의 교류(자매결연, 기독교문화, 단기선교)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와의 선교 협력(장단기 선교사 파송, 일본교회 목회) △해외 체재 일본인 전도(유학생, 기술자, 주재원, 결혼) △복음 중 심의 전도 및 선교 전략 추진을 들었다. 일본선교에 한국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

음의 빛을 갖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선교사는 “1884년 우찌무라 간조 목사 등 당시 일본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편지를 써서 미국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먼저 일본으로 파송됐다”며 “1885년 2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는 이수정에게 우리 말과 문화를 배웠고, 이들은 앞서 이수정이 1884년 12월 국한문으로 출판한 마가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가 더 강하여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일본에 복음의 빛을 같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화와 민족성에서 한국의 좋은 점도 있고 일본의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 선교사는 “일본을 역사적 감정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크리스천들은 일본과 일본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 역사를 초월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다보면 사랑도 생길 것”이라며 △일본인 1억 2,435만의 영혼구원 △일본교회 주일학교와 교회 성장을 위해 △일본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임하도록 △일본 교인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전도에 전념토록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선교협력을 하도록 △한국교회가 일본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선교사의 일본선교전략과 복음전도 사역에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희희 기자

2024 선교학 교수 라운드 테이블 모임 개최

11월 28~29일 진행, 최신 선교 이슈 및 흐름 공유하고 협력 논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포포 인츠 바이 웨라톤 조선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선교의 건강한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2024년 선교학 교수 라운드 테이블’ 모임을 진행했다.

이 모임에서 KWMA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역을 선교학 교수들과 공유하고, 선교학 교수들은 선교 현장과 한국선교의 주요 선교 이슈 및 세계 선교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교회가 건강한 선교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위한 비전을 나누었다.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은 첫 번째 날, 선교 현장 사역과 세계선교의 흐름과 함께 뉴 타겟(New Target) 2030의 4가지 주제인 △비서구 중심의 선교(Global South, 글로벌 사우스) △이주민 선교(Mission-minded Christian) △다음세대 선교(Future Generation) △디지털 선교(AI/Digital)를 공유했다.

이어 주안대학원대학교 유근제 총장의

진행으로 참여한 선교학 교수들을 소개하고 KWMA에 기대하는 바를 서로 나누는 후, 첫 번째 시간에 지난 11월 중순 해운대 포럼에서 선포된 ‘New Target 2030’의 4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토의를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2024년 KWMA 주요 활동 소개 및 공유’(부제 ‘제8차 NCOWE 이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주제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모임을 이어 나갔다. 첫째 날 일정 중에는 한국교회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이 격려사를 전했고, 바يب을 백

신센터 소장 양형주 목사가 선교지의 이단 실태에 대해 발제하기도 했다.

둘째 날 진행된 세 번째 시간에는 선교학 교수들의 최근 소식 및 연구하는 이슈, 선교관련 정보들을 공유했다. 특별히 참여한 교수들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New Target 2030’의 4가지 주제에 대한 논문을 공모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은 김한성 교수(아신대학교), 유해석 교수(종신대학교), 김철성 교수(목원대학교), 조해룡 교수(주안대학원대학교), 이선이 교수(호남신학대학교)가 선정됐다.

한편, KWMA는 선교학 교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올해 KWMA 주요 행사에 대한 발제 및 자료집들을 전달했다. 선교학 교수들은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다양



모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WMA

하게 소개해 주면서 함께 주요 선교 이슈를 고민하는 이러한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함께 모인 선교학 교수들 간에도

서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여 매우 유익했고, 이러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희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호주, 기독교단체 반발에 허위정보 법안 철회

호주 미디어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고, 낙태와 트랜스젠더 이념을 비판하는 이들을 침묵시킬 위함이 있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호주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철회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호주 의원들은 지난 11월 7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통신법 개정안(허위정보 퇴치) 법안 2024'를 찬성 7표 반대 57표로 처음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원 환경 및 통신법제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미셀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해당 법안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로랜드 장관은 "공개 성명과 상원 의원들과의 교류에 따르면, 상원을 통해 이

제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의원이 민주주의의 기둥을 강화하고 호주 국민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보호하는 다른 제안에 대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요청한다"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제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로랜드 장관은 "당초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콘텐츠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허위 정보를 다루는 대안을 모색했다. 여기에는 '합의되지 않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디페이크' 공유를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 인공 지능을 규제하는 개혁 등이 포함된다.

로랜드 장관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진화하는 위협이며, 단일 조치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국민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CDI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방송 서비스법 1992를 개정하고 호주 의회 웹사이트에 요약한 대로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라고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호주 통신 및 미디어

기관(ACMA)의 준수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ACMA가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제안된 법률에 위배되는 당사자는 벌금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법안이 호주 의원들에 의해 처음 승인되고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호주 기독교로비(ACL)는 이 법안을 "오웰적"이고 "호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이라며 비난했다.

당시 ACL 최고경영자인 미셸 피어스는 "제안된 법안은 당시 정부가 '진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대중 담론에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ixabay

피어스는 이 법안이 생명권 옹호론자와 트랜스젠더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까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국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경 기자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쓴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셉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에 있는 부활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과 '그리스도연합(USCCO)'을 이끌고 있다.

마테라 박사는 "목회 사역은 높은 소명이지만 독특한 도전으로 가득한 직업이기도 하다. 목사는 종종 교인들을 돌보고 양떼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웰빙을 돌보는 동시에 개인적인 압박을 헤쳐 나가는 임무를 맡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번아웃, 심지어 도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 부족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역 책임과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전화에 응답하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든, 교인의 필요를 돌보든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개인 및 가족의 필요를 소홀히 할 수 있다.

2. 모호성과 전이

목회 사역은 종종 모호함으로 특징지어진다. 목사는 종종 명확한 기대나 정의된 역할 없이 영적 가이드, 상담자, 관리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호함은

목사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회중의 다양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분별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목사들은 교인들이 자신의 감정적 문제, 좌절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목사에게 투사하는 전이를 자주 경험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목회자 역할의 일부이지만, 이러한 전이는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무게는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부족함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역할, 기대,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역할과 함께 겪게 되는 감정적 부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나 상담사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3. 시간 관리의 어려움

시간 관리가 목회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다. 목회자들은 종종 설교 준비, 상담, 회의, 행정 업무, 개인 연구 등 여러 방향으로 끌려간다. 적절한 시간 관리가 없다면 이러한 책임은 압도적일 수 있다.

많은 목사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서 영적 휴식이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업무를 위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휴식과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4.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함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

많은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의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한다. 긴 근무 시간,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은 목사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면 번아웃, 우울증, 질병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며, 우리는 그 성전을 돌보도록 부름받았다고 상기시킨다. 목사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신체 건강은 정서적, 정서적 웰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부담이 더해질 뿐이다.

5. 스트레스 관리 계획 부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의도적인 스트레스 관리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사역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수반하지만, 이를 관리할 계획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전략을 개발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관리 계획에는 기도, 성경 묵상,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같은 일상적인 실천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사는 또한 자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특정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취미, 운동 또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은 목사의 삶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히 줄

일 수 있다.

6. 볼 앤 볼 증후군(Ball and bowl syndrome)

'볼 앤 볼 증후군'은 목사들이 끊임없이 많은 책임(balls)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동시에 회중의 부담이라는 무거운 감정적 부담(bowl)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로 이어진다.

이 증후군은 목사들이 교회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성경적 모델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역의 일을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즉 목사들이 혼자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목사들은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그들과 함께 이끌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완화되고 목사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집중할 수 있다.

7. 좌식 생활 방식

많은 목사들은 사역의 요구로 인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을 영위한다. 설교 준비, 상담, 행정 업무는 종종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좌식 생활 방식은 비만, 심장병, 우울증과 같은 신체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인체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규칙

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산책하기, 일하는 동안 서 있기, 하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연습조차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목사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8. 끊임없는 소셜 미디어 소비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소셜 미디어는 목회자들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사역, 전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소셜 미디어 소비는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

목사들은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거나 다른 목사와 자신을 비교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압도당할 수 있다. 게다가 소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뉴스, 의견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소셜 미디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온라인 참여에 대한 경계를 정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시청과 화면 시간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면 목회자들이 디지털 세계의 끝없는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부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명경 기자

k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2024 세계 토양의 날

2024. 12. 5.(목) ~ 6.(금) | coeXmagok LEWEST
YouTube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모니터링, 관리
| Caring for Soils : Measure, Monitor, Manage



DAY 1 12. 5.(목)

기념식

- 기념공연
- 토양보전 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참가자 시상
- 건강한 토양 지키기 메시지 퍼포먼스

특별강연

🎙️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
권오준 | 생태동화작가

DAY 2 12. 6.(금)

토양·지하수 공감포럼

- 산업발전 및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

우리 모두 약속해요! 토양 보전을 위한 노력!

세계 토양의 날 라이브 시청 & 방문 이벤트

기념행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시청 후 세계 토양의 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참여기간 12. 5.(목) ~ 6.(금) 결과발표 12. 11.(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soilenvironmentcenter

與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후진국형 정치 테러” 강력 비판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예산안 강행 처리 맹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후진국형 정치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압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자초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핏수”라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간혹으로 처리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국회 소관 특별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하지는 의의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국회의 손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원안 유지를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예산을 틀어쥐고 국민을 불모로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구자

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예산 논의의 시작점은 예결위 일방 처리에 대한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정안 철회”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탄핵소추안과 감사 요구안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의 발목을 묶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추경호 공천 금품 의혹 녹취록 공개... 추 “가짜뉴스” 전면 부인

명태균 녹취에서

“20개 받았다” 발언 포착... 민주당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초 김태열 전 미래한국 연구소장 등과 나눈 대화가 담겼다. 녹

취록에 따르면, 김 전 소장은 “박 사장이 그러더라.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2018년 대구 달성군수 선거 당시 조성제 전 대구시의원이 추 원내대표에게 20여 원을 건네고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해석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조씨에게) 40개를 달라 해. 추경호 20개 주고 20개로 막이”라고 말하는 내용과 함께, 김씨가 “추경호가 그 때 해줬으니까 지난번에, 이번에는 가서 딱 담판 짓고 그냥 현금으로 말

고 수표로 10개 던져줘라”라고 하자 명씨가 “그럼 30개 받으면 되겠네”라고 화답하는 대화도 포함됐다.

또한 녹취록에는 조씨가 현금을 들고 찾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명씨는 녹취에서 “딱 현금 20억 갖다놓고 (조씨가) ‘살려주세요’ 하던데”라고 말했으며, “그래 연결해줬어요. 그러면 선거 치르잖아”, “저번에 추경호가 공천 줬잖아”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노준범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후 브

리핑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진 것이어서 수사를 통해 시비비율을 가려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명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영타리가 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명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며, 조씨에 대해서도 “이름만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 이와 관련한 보도나 확대 재생산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통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명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박용국 기자

검사들의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국회 법사위 통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찬성 11표로 가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감사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의 핵심은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행동이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장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이날 토론은 길게 이어졌다. 여야 위원들은 감사요구안의 정당성과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18차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의결, 그리고 승복”이라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쳤다. 박용국 기자

공수처 “채상병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 진행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소환 대상자를 현재 선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참고인 조사는 국방부 핵심 참모들을 포함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는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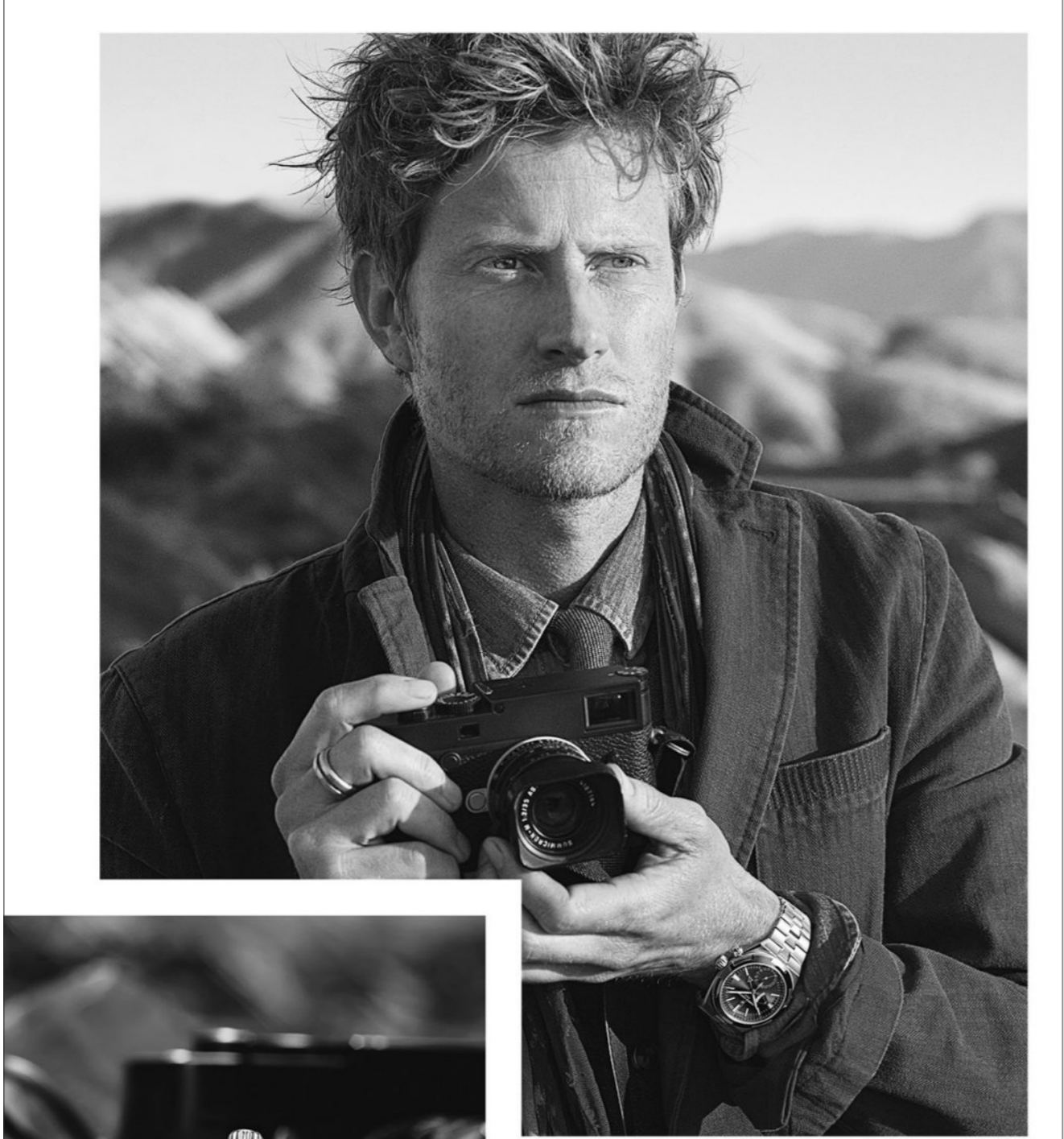
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는 현재의 조사 결과와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해당 휴대전화를 아직 인계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제기된 경찰 고위 간부의 항응 수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는 공수처법 24조3항에 근거한 것으로, 타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이 가능

하다는 조항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고가의 와인 등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 증거보전 신청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주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라며 공수처에 증거보전 신청을 촉구한 바 있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ONE OF NOT MANY. GENÈVE

경찰, 김대남 전 행정관 통화 녹취록 관련 서울의소리 압수수색

명예훼손 혐의로 사무실 및 관계자 대상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 유출 및 보도에 대해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사무실 두 곳과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이명수 기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내용은 김 여사가 이월도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받도록 했고, 이 과정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지속적인 보도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일부 인용 결정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뉴스시스

받았다.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용국 기자

바이든 행정부,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글로벌 반도체 시장 긴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메모리칩 관련 추가 수출 제한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억제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는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중국의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CXMT는 2016년 설립된 중국 D램 업체

로, 최근 시장에서 범용 D램 제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며 가격 교란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구형 D램 제품인 DDR4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DDR4의 한물가는 현재 8Gb 기준 약 1.13달러 수준이지만, 중국 메모리 제조사들은 0.75~1달러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D램 PC용 DDR4 가격은 전월 대비 20% 이상 급락했으며, 신제품인 DDR5의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상태다.

CXMT는 내년 월 생산능력을 현재의 20만장에서 30만장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범용 메모리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규제안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개발된 2세대 이상 HBM 기술을 활용한 메모리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HBM3과 같은 최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업계는 중국이 전 세계 HBM 수요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삼성

전자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삼성은 현재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3E의 품질 검증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규제가 현실화되면 공급 일정과 시장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행방과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나래 기자

11월 물가상승률 1.5%... 3개월 연속 1%대 유지

신선식품지수 32개월 만에 최저... 정부 "디플레이션 우려 없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며 2022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채소류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감장철을 맞아 무 가격이 전년 대비 62.5% 급등했으며, 호박 42.9%, 오이 27.6%, 토마토 15.3% 등 주요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반면 파(-20.7%), 양파(-7.9%), 감자(-11.8%)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과일류의 경우 신선과실이 전년 대비 8.6% 하락했다. 그동안 과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는 8.9% 하락했으나,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출하가 지연된 귤은 23.2% 상승했다. 수산물 중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출 증가로 김 가격이 35.0%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으로 5.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0.9%,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했으며, 외식 물가도 2.9% 올랐다. 주거비용과 관련해서는 월세가 1.0%, 전세가 0.1% 상승하며 전체 집세는 전년 대비 0.5%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 동향에 대해 "고물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소비자물가가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적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를 내년 3월 말까지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2025년 2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에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이어지며 '불황형 물가 둔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하락이 물가 안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대통령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 발표 검토

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다양한 지원 방안 포함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전환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만남에서 미국의 연말 소비 관련 세제 혜택을 언급하며, "연말에는 그동안 못한 소비를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카드 사용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연말연시 대책을 기반으로 추가

적인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휴가비와 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및 상품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연례적인 내수 진작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성실한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도 채무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1인가구 평균소비성향 급락... 주거비 부담이 발목

한은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 시급... 고령층 빈곤 해소 절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민간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최근 1인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18.6%)과 고령층(19.1%)에서 1인가구 비중이 두드러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대의 경우 의식 변화와 취업 등 비인구적 요인이 1인가구 형성의 주된 원인이었던 반면, 60대는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의 60% 중반에 불과해, 70% 후반에서 90% 초반을 기록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사회보장 수준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팬데믹 이후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이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9년 0.78%에서 2023년 0.74%로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0.74%에서 0.73%로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의 하락이다.

이러한 소비 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이 지목됐다. 1인가구의 소비 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2%로, 전

체 가구 평균(14.8%)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월세 상승, 생활물가 급등,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충격, 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비 위축을 가속화했다.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한국은행 조사국 이재호 과장은 "내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1인가구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열악한 소득과 고율 해고를 위한 빈곤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순자산 분포에서 하위 1분위가 45.1%, 2분위가 26.9%를 차지해, 자산 양극화 현상도 심각했다. 이는 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자산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나래 기자

"신천지 측 대관 신청 취소,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위한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회서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는 경기도의회 제 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의회서에서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질의한 '경기관공사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성전(신천지)에 대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신청 취소에 대해 "도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10월 29~31일 약 3만 명이 모이는 자칭 '10만 수료식' 개최를 위해 경기관공사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신청했지만, 행사를 며칠 앞두고 대관 신청이 취소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첫째 책무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접경지역의 상황이 여려날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오물 풍선이 지난 7월 대비 10월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월 12일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휴전선 인근에 8개 포병 여단의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며 "지난 10월 16일 경기도는 파주-김포-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시점과 맞물

려 남북자피해전담도임에서 신천지대북전단살포를 예고하던 시점이 신천지의 대관일과 겹쳐 위험이 예상됐고, 실제 10월 31일 지역주민과 남북자피해전담 충돌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관 책임은 관광공사 사장에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취소 권한을 가진 관광공사는 경기 북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대관을 요청하던 주최 측은 대관 취소로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이지 종교탄압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구급의정신 활명수
 반도코의 인기중전 손기정 남승룡 양 선수 우승 축하
 건강체력, 건근 불탈하고 내구력의 신명! 오직 건전한 위장에서 배태된다
 건강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보급한다.

救命水
 수 명 활

服 用 합 시 다

牛島男兒의 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體力、堅忍不拔하는 耐久
 力에 根源은 오직 健全한 胃腸에서
 胚胎된다 健康한 朝鮮을 目標하고
 다 갖치 胃腸을 健全케 하기 위하여

地帶五町京和府城京 房藥和同 式株
 九一七二光新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SINCE 1897 동화약품

요한복음(80)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본문: 요한복음 15:18-25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도,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특별한 관계로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셨다. 그동안의 미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분위기를 아셨기에 ‘미움’이라는 단어를 연속 쓰신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18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20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23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24절), “그러나 나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25절).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미움의 대상이시라는 말씀들이다. 25절의 ‘그러나’는 좀 예상밖의 접속사다. 유대인들의 행동이 터무니없을 만큼 기대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물어보자. 예수님이 미운 짓을 하셨나? 세상을 위해 좋은 일만 하신 것 아닌가?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기독교자들 입장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운 짓만 하신 것,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할 정도였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행하기까지 했을까? 십자가가 뭐냐? 미움의 결정판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도구로 바 꾸버리셨다. 미워하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미움 당할 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신다.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20절). 주인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는데 종인 우리가 편안하게 호의호식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란 말씀이다. 좁은 길, 명예를 매는 길, 십자가의 길,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23절), 그 미움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23절에서는 ‘나와 아버지가 강조된다.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그들의 죄가 심각한 죄라고 폭로하신 셈이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받는 미움을 하나님이 당하는 미움으로 여기신다면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

◆소속이 다른 것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대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19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한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온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대적이 필연”이라 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을 더 확실히 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5-6),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소속도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자신을 소개했던 사도 바울은 발립보서에 보면 자신에게 유약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3:7-9). 무약하던 것이 아니라 유약하던 것, 그걸 버린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면 자신의 출신이나 학벌, 지식, 명예, 일, 고난, 성공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게 하나도 아까울 게 없다는 것이다. 소속이 바뀌면서 자랑거리가 바뀐 거다. 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생의 기쁨도 달라진 거다. 고난도 당하지만 고난 중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생의 목표요 기쁨이었다.

소속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만의 냄새가 나야 한다. 세상은 역겹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 기억하라.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21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움이라 하신다. 이 세상의 무지는 하나님에 관해 듣지 못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함에서 오는 무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며 순종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배척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워한다. 박해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20절),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말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아니면 그의 말씀을 지키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다.

앞으로도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상과 우리 사이의 이 적대관계의 원인이 뭐가 하

는 것이다.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적대관계가 되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서 비난과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별로 잘못된 것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보면 온전하지 못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 자기들은 개판치면서 우리가 개판치면 안 된다고 욕하며 미워하지 않나? 생각해보라. 지금 세상에 도덕이 있나? 영광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은 도덕이 다 무너졌으면서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한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준이 안된다고, 개독교라며 난리친다. 이렇게까지 악을 쓰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한다. 세상이 정말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을 꼴보기 싫어한다. 독선적이고 바이성적이라고 난리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다. 이게 세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 컬 투쇼에서 성당에서 신부님의 강론 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 적 있다. 신부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다시 물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다. 신부님은 할아버지께 이유를 물었고, 할아버지는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사람들은 “아, 저 정도 연세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도 젊은 때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 나이가 아흔 둘이 되니까 깨달음이 다 죽었어. 다 죽어서 미워할 수가 없어” 그렇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다.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미움, 영문 모를 반감과 비난, 죄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거세지는 미움, 이런 세상의 본능적 배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압박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도 말아야 한다. 타협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결국에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미움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랑. 요한복음 15장의 전반적인 맥락도 사랑이다. 그리고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라고 선포하셨다. 기억하라.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세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채권 관리
- 노후 국공유채권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박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백종근 목사의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진'(18)



백종근 목사

◆영흥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다

1903년 유진벨에 의해 시작된 남학교는 원래 소학교 과정으로 출발했으나 1907년이 되면서 중학교 과정이 신설되었다. 과정만 나누었지만 여전히 한 지붕 밑에서 3명의 교사가 110명이나 되는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었다. 하위럼이 목포에 부임하던 그해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무튼, 부임 당시(1909) 하위럼이 교실에서 마주한 학생들에게 받았던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남학생들의 품행과 학업은 양호했다. 가을철에 야외활동이나 봄철의 소풍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연중행사 가운데 선교회 활동으로 한 달에 2회 저녁에 만났으며, 그것과는 별도로 두 번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성탄절에는 12명을 뽑아 여행경비를 주고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시골을 돌며 전도하게 했다. 학생들은 모두가 자신이 뿔히길 원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 이듬해에는 학생 수가 135명으로 늘었으나 그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63명은 기숙사비를 받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하위럼 선교사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궁리한 끝에 스테이션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거들게 하고, 학생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거였다.

"스테이션 조성공사에 잡일을 거드는 보조 인부로 봉사하게 하자, 3개월 동안 평균 참석자가 47명 정도가 되었다. 학생들은 매일 3시간 반씩 일하고 한 달에 3엔씩 받으면서 공사장 주변 정리와 자체

운반과 같은 잡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 그들의 급료는 노동자의 임금을 참작해 그들 임금의 1/3 정도를 지급했다."

그나마 이 일도 날씨가 좋지 않다는지 혹은 감독자가 결근하거나 장비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을 때는 근로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일이 없어 돌아가야만 했다. 하위럼 선교사는 일거리가 없어 돌아가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학비 마련을 걱정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자 하위럼은 군산 영명학교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아예 학교에서 실과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는데, 일종의 실기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학비로 연결될 수 있게 했다.

그는 학원 선교의 현장에서 실기교육의 절실함을 느낀 하위럼은 연례회의 때마다 실업교육의 관심을 촉구하며 안전으로 올렸으나 논제의 중심이 언제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실업교육이 과연 필요한가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볼 수가 없었다. 결국, 기술교육은 학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만 그쳤지, 정식 학과목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로도 하위럼은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 실업교육을 전담해줄 전문인력의 파송을 해외 선교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하위럼의 제안 이후에도 레이놀즈가 해외 선교부에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력과 예산을 청원한 적이 있었으나 해외 선교부에서도 선교에 있어서 교육 사역은 교회 지도자양성에 목적이 있지 교육을 사업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교육 사역에서 실업교육은 배제한다고 뜻을 박음으로써 오랫동안 이어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실 하위럼이 영흥학교 교장으로 사



전라노회의 창립(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하위럼 선교사)

역하는 동안 가장 하위럼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실업교육의 확대 시행의 여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독교 학교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점이었다. 그들은 매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수업내용은 물론 심지어 학교에서의 모든 일상까지도 보고하게 하는 등 선교사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었다.

"총독부에서는 최근 들어 부쩍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과 사용하지 않는 책은 무엇이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곤 했다. 심지어 연료사용 경비 내역과 선교사의 사례 액수까지 자세한 보고를 요구해 왔는데, 모든 질문서의 내용이 한자로 쓰여있어서 번역을 따로 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었다. (중략)... 나를 강제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임시 휴교 조치를 강행했던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다. 국면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임석 臨席과 단속團束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이번 연례회의에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라노회 창립에 참여하다(1911)

1911년 대리회(代理會: Sub-Presbytery)를 노회로 개편한다는 독노회의 결정에 따라 독노회 산하 7개 대리회를 7개 지역 노회로 개편 조직했다. 이로써 조선 장로교는 선교 한세대 만에 노회 정치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라대리회 역시 1911년 10월 15일 전주 서문밖교회에서 회집을 하고, 전라노회로 개편하면서 임원을 선출하고 노회 시대를 열었다. 당시 전라노회 창립 당시 회원구성을 보면, 목사회원이 배유지, 이눌서, 류서백, 부위럼, 강운림, 최의덕, 마로덕, 고라복, 타마자, 하위럼, 이기풍, 김필수, 윤식명 등 13명이었으며, 장로회원으로서는 양성룡, 최흥서, 서영선, 신경운, 이승두, 최국현, 조덕산, 이원필, 류기택, 최학삼, 이자익, 위위럼 W. A. Venable, 오인목, 김응규(유교로 불참) 등 14명으로 총대는 모두 27명이었다.

임시회장이 김필수 목사의 사회로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과 각부 위원을 선출했다. 이때 하위럼은 이눌서 선교사, 류기택 장로와 함께 규칙위원을 맡아 노회 조직의 틀을 함께 세웠으며 창립 당시 전라노회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회장 : 김필수 목사

부회장 : 배유지(Eugene Bell) 목사
서기 : 이승두 장로
회계 : 최국현 장로, 최의덕(Lewis B. Tate) 목사

정사(定事)위원-배유지(Eugene Bell), 이기풍, 최흥서
헌의(獻議)위원-서영선, 부위럼(William F. Bull), 이승두

재정(財政)위원-이자익, 고라복(Robert T. Coit), 강운림(William M. Clark)
규칙(規則)위원-하위럼(William B. Harrison), 이눌서(William D. Reynolds), 류기택

학무(學務)위원-김필수, 류서백(John S. Nisbet), 위위럼(W. A. Venable)
정치(政治)위원-윤식명, 최의덕(Lewis B. Tate), 최학삼

검사(檢査)위원-未擇
남장로교 내한 선교부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7개 노회 가운데 전라노회의 지역 범위가 자신들의 선교구역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1914년 8월 총회로부터 제주 선교를 전라노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사경회(查經會) 강사로 참여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각 지역 선교지부에서 해마다 열리는 중사경회(Station Bible Class) 행사에는 다른 지역 선교지부의 선교사들을 강사로 불러 개최하는 관례에 따라 1910년 2월 1일 군산에서 개최된

사경회에 하위럼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그는 설교학과 소요리 문답 등 2과목을 가르쳤는데 참석자는 260명 정도 되었다.

하위럼이 군산에서 사역할 당시(1906) 처음 개최되었던 중사경회에 60여 명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었다. 이듬해 1911년 2월에는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남부 사경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순천 선교지부 개설 위한 타당성 조사
1910년 남장로교 내한 선교부에서는 호남 남동부지역에 또 다른 지부 설치를 계획하고, 광주와 목포지부에 속한 선교사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목포지부에서는 하위럼이 위원에 지명되었다. 소속 위원회의 대다수 위원은 광주에서 출발했으나 하위럼은 목포에서 혼자서 말을 타고 1,280Km의 순회 일정을 마치고 광주로 가서 위원들을 만났다.

위원들과 함께 순천지역을 돌아보고 순천이 지부 설치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장소라는데 동감했으나 선교부의 예산과 인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스테이션을 여는 것은 불확실해 보인다고 하위럼은 판단했다. 왜냐하면, 목포지부에 대한 선교사 총원요청에도 해외 선교부의 반응이 늦어 안타까워했던 터라, 하위럼은 개인적으로는 순천지부의 개설에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종근 목사는 한국에서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연구원(KIET)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미국에 유학 후 다시 신학으로 바뀌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가 되었다. 오래 근무한 후 은퇴한 지금은 피닉스 아리조나(Phoenix, Arizona)에 거주하고 있다. 백종근 목사는 하위럼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초기 남장로교 조선 선교역사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남장로교 선교사 부위럼(William F. Bull)의 선교행적을 정리해 집필하는 한편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연구회를 결성해 미주 한인 교회 역사를 찾아 복원하는 일에 빠져 있기도 하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김한요 목사
베렐교회

한 기도입니다. 기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이상 신앙생활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성경읽기와 기도생활... QT(말씀을 읽으며 질문은 던지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Question Time)라고 합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즈음에 뒤돌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식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이 되면서, 인직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결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엄중히 맹세한 것도 새해맞이 맞아 버리고 연말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질문을 하나를 나 스스로에게 던져 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목사에게 단질 질문이 아니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때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재미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라고 해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영상을 묵상하고 녹화하는 것을 4년째 하면서 심방 갈 때 말씀을 '또 묵상해'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1) 게을러서 2) 바빠서 3) 성경이 어려워서 4) 성경을 믿지 않아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1, 2번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저는 4번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매일 체험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매일 안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가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왜 매일 큐티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매일 씨름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묵상을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혹은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사업을 결심하시

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려다가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 새 길을 믿음으로 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임시 인터뷰를 앞둔 사람이든지,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든지, 직령기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든지, 결혼 생활에 갈등하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 해답을 찾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용하십시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로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범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분단된 나라를 향한 교훈, 오바다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원로목사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 서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에돔, 곧 예서의 나라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공동 조상으로 삼은 산악국가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유대의 고난과 멸망을 방관하며, 심지어는 자기 형제국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곳 사람을 적에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가진 사람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섰, 함과 아벳 족속을 통하여 70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민족의 천사로 도

우시며, 지경을 정하고 국경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신 3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도 그 나라를 온 세상 민족을 위한 나라, 곧 제사장 국가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열방을 위한 영적인 모판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지만, 열방의 민족들을 결코 무관심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종말의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강대국을 관심사 속에 두십니다. 아울러 작은 국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람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에 대한 자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훈 또한 이웃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 70 제자를 세워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십

니다.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계 속에 있는 민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세계 열방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웃 사랑" 혹은 "형제 사랑"입니다.

오바다서는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 에돔을 향해 예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신약의 안전을 믿어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부로 자급하지 않으며, 형제 야곱의 후손 유대 왕국이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지 않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더구나 그 환란 당한 민족을 수탈하고 인신매매 한 것이 잘못이라 질타합니다.

유대와 에돔보다도 더욱 가까운 민족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즐거운 이유는 혈연으로 얽힌 가족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 혈연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대홍

수를 통과한 노아의 식구입니다. 그들이 아라뫼산을 내려와 70 민족을 이루고, 흩어져 살면서 열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하나이며, 모든 민족은 한 혈통입니다(행 17:26-27). 남한과 북한은 더구나 같은 언어를 가진 한 민족입니다. 북한을 부당스러워하고, 방관, 무시, 무관심한 것은 "친족을 환란 중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오바다서는 한민족을 향해 말합니다. "형제를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폭력 없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을 꿈꾸라. 어려움 속의 북한 형제, 자매와 탈북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 탈북민을 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통일의 날을 위해 도적 같이 먼저 보내진 통일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북한 형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 안식년과 화년의 정신을 실천하라.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자매에 대하여 울라. 자유롭던 도시들이 우상의 땅이 된 것으로 통곡하라. 네 형제의 용모가 왜소한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라."

Evangelicalism 복음주의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들이 소명을 받아 세계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후 19-20세기에는 DL 무디, 찰스 스필먼, 20세기 이후에는 빌리 그레함을 통해,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와 복음주의의 현주소는 탈교회화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지켜왔던 교리와 성경적인 신념이 모호해져, 사실상 신앙을 떠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이상한 복음주의의 예큐메니컬이라 부릅니다. 예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세상 전체, 온 세계, 모든 이의 일치와 화합"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지식과 도덕과 윤리 문화 심지어 다른 종교의 좋은 면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무척 좋은 표현인 듯하지만, 매우 위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칭 복음주의자라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원정은 이슬람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강제로 퍼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를 장악하면서, 구교는 스스로 "범기독교적, 폭이 넓은"이라는 거창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의미를 지닌 카톨릭(catholic)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때도 여전히 무력을 통한 복음 전파의 시도가 있었고,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결합하며 급속도로 타락해갔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지금의 신교,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루터를 통해 시작된 개혁주의 교단 루터교는 이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스콜라철학과 같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지성주의가 스며들면서, 원래의 모습과 전혀 판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경직화 현상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18-19세기에 다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헛필드와 같은 분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들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선교사

양심의 가책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2) 미국에 살고 있는 한 70대 노인이 대학생 시절에 독일에 여행을 갔다가 술집에 들러서 맥주를 마신 후에 맥주잔이 마음에 들어 술집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인 2024년 5월, 노인이 맥주잔 값을 주인에게 지불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독일의 맥주집 '호프브로이하우스'는 자신의 이름이 Gregory라는 74세 미국 노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니다.

Gregory가 미시간주립 대학에 다니던 1972년 초에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독일의 호프브로이하우스 맥주 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맥주잔을 몰래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용서해 달

라며 50달러 지폐를 편지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대학생이라고 적었습니다. Gregory가 대학생 때 훔친 맥주잔은 호프브로이하우스를 뜻하는 문구 HB가 새겨진 석재(石材)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프브로이하우스는 이 잔에 맥주를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눈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Gregory가 다녀간 몇 달 뒤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념품으로 40유로 정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호프브로이하우스는 "Gregory의 사죄를 가까이 받아들이겠다. 맥주잔과 함께 계속 즐기시길 바란다. 편지와 함께 온 50달러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들 중 인간들에게만 양심(良心:Conscience)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이든 후부터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온 물건이나 물품을 볼 때마다 그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Gregory는 50년이 지난 후에

도 여전히 맥주잔을 볼 때마다 주인 몰래 갖고 나온 물건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늦게나마 맥주 집에 컵 값을 보내며 사죄한 것은 Gregory가 맥주 컵을 볼 때마다, 이것은 슬쩍 온 물건이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인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컵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는 끊임없는 양심의 채찍질에 그는 드디어 50년이 지난 후에 컵 값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서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딤후 4:2)는 말씀을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火印)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둔해서 찬 것이나, 뜨거운 것이 달아도 크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의 민감성은 다릅니다. 바울 하나님을 도둑질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를 도둑질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없

으면 짐승이지요.

Gregory 노인이 50년 전에 있었던 일대에 대해 청산한 것은 그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대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행한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청산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딤후 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한 '청결한 양심'은 청산할 것을 청산하는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봅시다. 혹시 당신은 슬쩍한 물건을 여전히 쓰고 계신가요? 이 일대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으신가요? 살 례.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등록동거혼은 결혼제도를 붕괴시킨다



김창환 목사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1. 등록동거혼 도입은 기존 결혼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월 30일 비혼 출산 관련 “등록동거혼(일명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

와 재산 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가 동거혼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연대협약제도인 파스(PACS)는 1999년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동성이성 상관 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을 인정하고 전통적 부부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해지는 게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스도 마찬가지다. 커플의 결합과 분리가 쉽다 보니 비혼을 조장하고 가족 해체,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결국 동거혼은 정통적인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성경은 신성한 결혼을 축복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요 2:1-11).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고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를 비유로 들었고(마 22:1-14),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며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예를 말씀했다. 성경은 정상적인 결혼만을 말씀하고 있다.

가정(家庭)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 2:18-2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요 2:1-11). 그

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고 말씀하셨다. 가정은 신성한 공동체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해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을 인정하고 전통적 부부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결혼 제도가 붕괴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조장되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3. 등록동거혼 인정은 동성혼을 합법화의 과정이며 혼외자를 양산한다.

파스가 동성 커플을 옹호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프랑스는 파스를 도입한 지 14년 만인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아울러 파스 도입 이후 동성 간 동거뿐만 아니라 이성

간 동거도 적용되면서 동거문화가 빠르게 확산했다.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상 결합이며, 2021년 혼외 출생 비율은 63.5%에 달했다. 한국에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정통적인 결혼 제도는 붕괴되고, 프랑스처럼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은 인정되게 될 것이다. 쉽게 동거하고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그런 경우 혼외자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하지만 동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돌봄의 부재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편린함을 위해 동거 출산이나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는 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결국 프랑스처럼 동성혼이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한국교회는 등록동거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등록동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등록동거혼은 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인구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파스는 이미 프랑스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 대부분의 동거 커플은 18개월 이내에 결별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동거 커플이 출산한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조손 가정 또는 사실에 맡겨지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도리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에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10.27 연합예배의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연합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결혼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가르쳐서 건강한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

순복음의 삼중 축복이란?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우리교회의 이름에 있는 ‘순복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복음(Full Gospel)’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Fully), 모든 것(Totally)을 믿고 받아들

이는 순수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결과로써 받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육체의 병으로부터 치유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이적인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시작은 1901년 1월1일 새벽까지 기도하던 캔사스주 토파카시에 있는 뱀열성서 신학교 학생들이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된 사건으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이 전해지

면서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Azusa)거리에서는 7년 동안이나 매일 밤낮으로 모여 기도하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미전역에 일어난 교회들이 1914년 아칸소주 핫 스프링(Hot Springs)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총회를 갖게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에 약 442,000개 이상의 교회와 8,5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으로 한국교회의 4대 주요 교단이 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천년 기독교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삼중축복의 신앙이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사:2)로 요약된 성경적 축복관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붙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 후부터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갈등과 고통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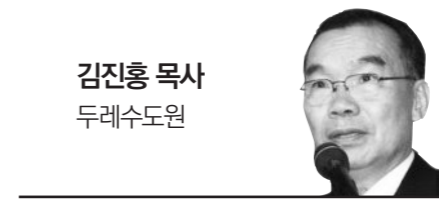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망,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롬5:10)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갈3:13) 저주의 운명아래 있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였고, “범사에 잘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저주를 이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근면성실과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치유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과 봉사헌신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축복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크리스천의 다섯 가지 확신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그러나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디모데후서 3장 14절)

요즘 같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과 신앙으로 자신을 깨끗이 지켜나가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들어 자신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확신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컬어 ‘성도의 다섯 가지 확신’이라 부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한낱 윤

리나 교양에 머무르게 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성경말씀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였습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는 은혜가 쌓이면서 우리의 영적 세계 또한 깊어 집니다.

넷째는 천국 소망에 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생활에 대한 확신은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으니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구호는 모든 교회가, 모든 크리스천이 지녀야 할 확신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위의 다섯 가지 확신을 품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신앙 생활로 이어집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동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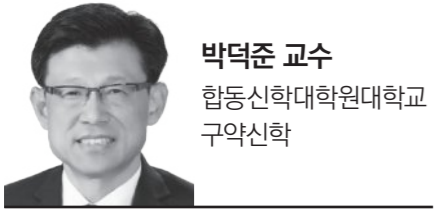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복음으로 읽는 구약 선지서 V



박덕준 교수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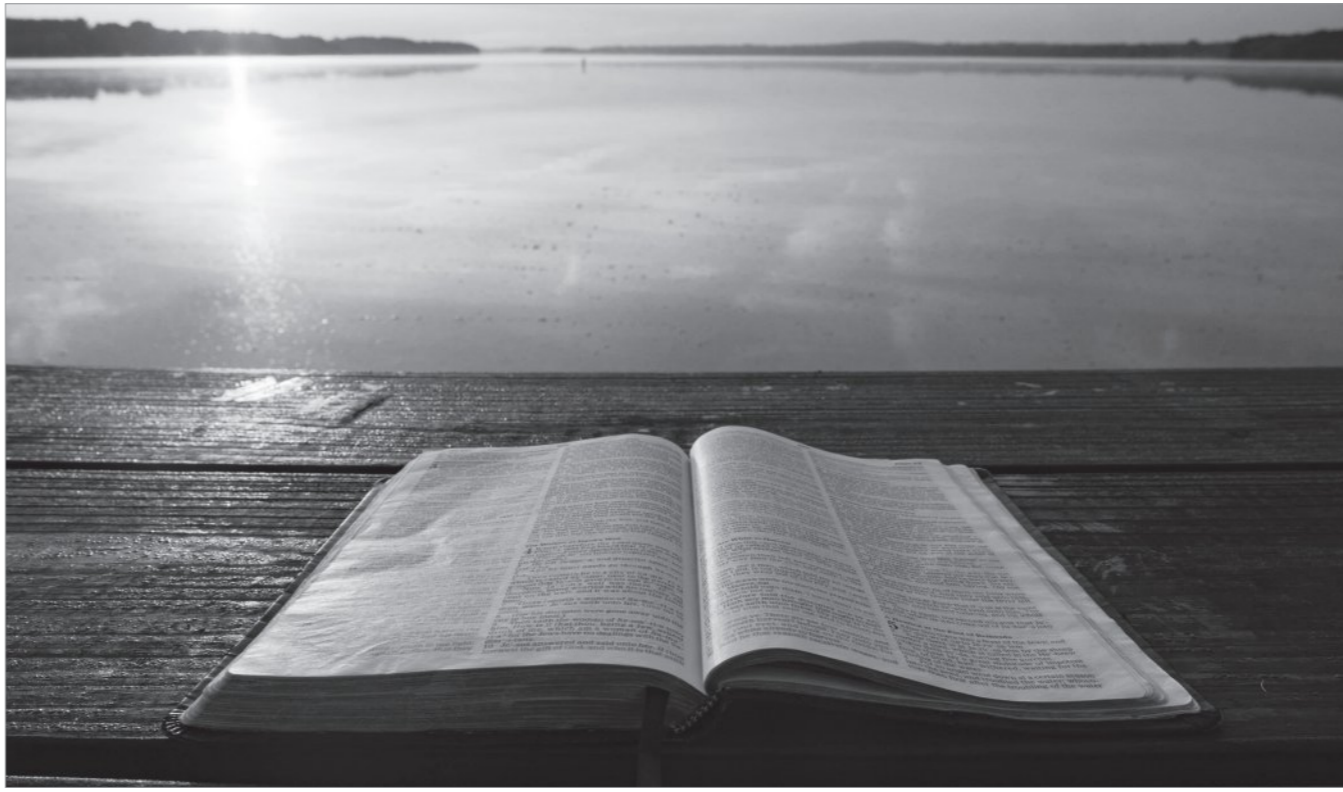
영화로운 시온에서 여호와가 통치하실 때(이사야 21:5) 이사야서의 서론(1:1-2:5) 마지막 단락인 21:5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시온이 회복될 때의 영화로운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죄악 중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충성된 백성이 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온의 회복은 “말일에” 시온이 얻을 존귀와 영화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먼저 시온은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고 모든 언덕들 위에 높아질 것이다 (2). 시온은 그 주민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징계를 받아 황폐해졌고 (1:7-8),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불의한 성읍이 되어 남편 여호와로부터 더러운 창기 취급을 받았다(1:21-23).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신 이후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다(1:24-27). 이제 그 약

속의 절정에 시온의 영화가 약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온이 모든 산들 중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시온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 이 온 사방에 선포될 것임을 의미한다(사 24:21-23; 숙 14:9-10; 시 48:1-2 참조). 모든 이방나라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것은, 각기 산들 위에 신전을 짓고 신들을 숭배하던 자들이 시온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사 21:2-19; 18:7; 19:16-25; 25:11; 45:20-23; 66:18-21 참조).

그렇다면 왜 이들이 시온에 올라 여호와를 섬기려고 할까? 이는 여호와께서 바르게 행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3). 시온에 계신 여호와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사 51:6; 34:5 참조), 그의 계획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사 25:1), 그의 정의로운 율법을 만민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사 51:4-6). 이러한 여호와와 가르치심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며 시온에 오르는 이방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안전과 평화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전쟁으



로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어 무기를 놓고 영속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4).

영화롭게 회복된 시온(“아름의 하나님의 전”)에 이방나라 백성들이 올라와 여호와의 길을 배워 “그의 길로 행하고” 또

한 그의 통치를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시온의 주민 곧 여호와와 언약 백성에게 회개와 순종을 독려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언약 백성을 독려하며 외친다.

“아름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지”(6).

본문에 제시된 시온의 영화로운 회복과 여호와와의 임재, 그리고 온 열방이 여호와께 나아와 그의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어

둠 가운데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요 1:14).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마 1:23),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골 1:18). 그는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마 5-7장),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14:16-18, 26-27; 16:13-14), 우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롬 8:2).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행하며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행 15:15-17; 고전 12:13 갈 3:7-14).

이토록 큰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롬 6:14; 고전 15:33-34).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며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다(고전 3:16-17; 6:19-20). <계속>

제왕절개 분만, 내년부터 돈 안 든다... 본인부담율 5%→0%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결정을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3일, '2024 장애공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에 맞추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운영되는 '장애공감주간'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개최되었다.

2024 장애공감주간에는 “공감으로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서로 닮은 일상” 브이로그 시리즈 2편, ▲네트워킹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 ▲지하철 옥외광고 및 지상과 TV 공익광고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없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더욱 폭넓은 장애공감 형성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로 페스티벌을 개최했

다. 세계 장애인의 날에 개최된 본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으로 하나 되는 장애공감주간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청각장애인 아이들 그룹 '빅오션'의 공연으로 장애를 넘어 꿈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식개선 유공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 실시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콘텐츠(동영상) 공모전 등 세 분야에서 포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적을 분석해 각 부문별 우수 실시기관 6곳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복순원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민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
- 5. 토지: 2,756m² (833.69평)
-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품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북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허리 무릎 관절통증 大 무료체험행사

1개월 이상만 복용하셔도 재구매율 85% 이상 ▲ 무료체험 후 효과 있을시만 주문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회

※ 꼭 체험 후에 구입하십시오 ~

체험 후 효과를 보신 분만이 구매하실 수 있고 중복체험은 불가합니다.



식품제조허가: 제 2020-0029046호 특허등록: 제 30-1204880-00-00호

(주)관절건강에서는 한방연구에만 40여년을 종사한 한방 제품을, 각종 관절의 통증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주소, 성함을 보내주시면 꼭 무료체험용을 보내드립니다.

- ※ 계단보행이 불편하신 분
- ※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신 분
- ※ 무릎, 허리, 발목, 목등이 불편하신 분
- ※ 이번 기회에 관절건강을 찾고 싶은 분

10일분 무료체험 (주)관절건강 꼭~보내드립니다! 가격도 무료체험 택배비 4,500원만 착불! 가격도
주문은 꼭 문자로만! 010-6335-0165 저렴합니다!
02) 2268-0719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국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씨르프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기독교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한영실천신학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포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원 자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 및 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교회가 버거운 이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

신간 '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

건강하다고 소문난 교회를 다녀도 뭔가 불편한 마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저자 이주현 목사(바른교회 담임)는 이 책을 집필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왜 자주만 사라지는 걸까?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왜 자주만 늘어나는 걸까? 아마 이들은 교회를 다닐 때, 수십 번은 될 부흥회, 수련회, 성경 공부에 빠짐 없이 참석했던 '순종적인' 교인이었을 것이다.



거절하지 못해서 하게 된 수많은 교회 봉사 때문에 정작 예배 시간에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괴로운'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단지, 교회와 목사가 불편할 뿐이다. 교회 안에서는 차마 꺼내기 어려운 질문,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감히 여쭙보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교회를 버거워하

는 '동생'과 목회자인 친한 '형'이 나누는 질문과 답이라는 설정을 통해 씩씩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이들,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이들, 마을 밖으로 내쫓겨 살아야 했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스스로를 버려진 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딛고 있던 땅의 정복자(지배자)로 오시는 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야. 내가 성주로 있는 이성음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깃발을 올리는 거지"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나와 너에게 단 한 번도 불완전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위에, 그 생명 안에, 그 진리 곁에 있으면 완성돼 가는 거야. 성화의 고귀함과 그렇지 못한 나의 비천함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완성돼 가. 신앙은 이 세상이 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이 가진 확고한 믿음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은 결국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 질문을 바꾸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으로 인한,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근거로 한 자신의 특별함, 우월성, 자랑거리가 된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거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한 애도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우리 모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야. 권위자도, 권위를 따르는 자도, 권위에 저항하는 자도 말할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공동체여야 해. 선한 일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면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하고, 선한 일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면 저항의 용기를 가져야 해"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해. 내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물어야 해. 믿음과 현실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다른 믿음'이지. 작은 것, 작은 자, 작은 일이 우리에게 '작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은 우리 인식과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역사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벌이는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 마침내 바벨론은 패배하고 새 예루살렘이 승리할 것이다. 이 놀라운 진실을 믿으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의탄 섬에 유배된 불온한 1세기 반체제 인사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강성한 제국 로마가 한낱 식민지인 예루살렘에게 패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당대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였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것이다. 책 <남은 것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스타트 맥나이트 교수(노던 신학교 신약학)과 코디 매치 작가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서인지 탐구하고 연구하며 본 도서를 집필했다. 두 저자는 교회, 특히 복음주의 진영을 향해 요한계시록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체제에 대항하는 제자도를 요구한다. 오늘날의 바벨론에 거주하면서도 그것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한다.

끝으로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어린양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을 잘 읽으려면 '하나님의 정치'(theo-politics)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요한계시록은 한결같이 제자도의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이다.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계시'하면서, 용과 야수들과 바벨론을 분별하는 법을 함께 보여 준다. 사회 참여에 나선다면 시 하나님을 사적인 삶의 언저리에 남겨 둔다면 요한계시록을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책은 하나님의 정치만이 유일한 정치라고 말한다. 엘리자베스 피오렌자가 거듭 일깨워 주듯이, 요한계시록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정치적 상상 속에 직접 속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적절한 신학적-윤리적 답을 내어 줄 것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트라우마와 치유의 여정: 인간의 회복과 성장에 관한 탐구

트라우마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부다. 오늘날의 뉴스는 전쟁, 대량 학살, 테러리스트 공격, 자연재해와 같은 대규모 사건부터 증오 범죄와 같은 개인적 비극에 이르기까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고통 또한 피해 통계를 통해 드러난다. 아동 다섯 명 중 한 명은 성추행을 경험하며, 네 명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 보호자 아래에서 성장한다.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현실을 심리학적으로 탐구한 책 '트

라우마, 극복의 심리학'이 독자들을 찾아왔다. 저자인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에디스 시로 박사는 25년간 전 세계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과 교감하며 연구를 이어왔다.

그녀는 9·11 테러 생존자, 미국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의 아이들과 교사, 서프사이드 건물 붕괴 생존자, 내전 지역 고문 피해자, 전쟁 난민들과 함께하며, 삶의 불씨를 되살리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 책은 시로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집단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미세 트

라우마까지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비통한 고통과 이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능적 치유력을 이야기한다.

사례자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극복하며 본연의 품위와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극단적인 사건뿐 아니라 직장 내 갈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까지 다룬다.

에디스 시로 박사의 '트라우마, 극복의 심리학'은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회복의 길과 미래를 향한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의 생명력과 치유의 힘을 새롭게 조명한다. 이나래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안될까? 자주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주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믿겠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에 결정을 내리면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고 믿음으로 설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갖게 하면 기도 응답도 바로 해주시고, 기도를 적게 하면 응답도 더디게 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길어지게 되지만,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오래 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지만,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강요섭 성령으로 기도 하는 법



감사란, 하나님의 피조물을 존중하여 돌보고, 내게 있는 양식에 곁히 만족할 줄 아는 은혜의 문법이다.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적절한 고귀한 길이기 때문이다. 은혜와 감사의 현상학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사실은 은혜로운 베품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기뻐워하며 감사와 돌봄으로 응답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특히 귀한 선물이 나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에 적합한 반응은,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과 그 선물을 돌보는 것이다. 은혜는 감사를 낳으며 감사는 돌봄을 낳는다. 스티븐 보우머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또 다른 한 쌍의 선지가 나타나야만 했다. 그중 첫 번째 선지자는 모세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광야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 나라의 사악한 통치자와 대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여호수아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요단 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으며, 이 책을 행하고 창녀들과 적국에 속한 군인들을 환대해 주셨다. 그분은 나환자들을 고치고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도시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며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나 엘리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이름 자체에 구원의 의미가 있었다. 그 이름은 예수 Yeshua, 곧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엘리야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로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을 실제로 가져올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천사는 앞서 요셉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 알라스타어 로버츠 & 앤드루 윌슨 '출애굽의 메아리'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전주교회)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쌍문대안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민수기 11:11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주 환난을 보내십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것입니다. 도금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조 보석은 시금석인 다이아몬드에 닿는 것을 몹시 싫어하지만 진짜 보석은 어떤 테스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들이 있고, 몸도 건강하며, 사업이 번창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몸은 병들어 아프며, 영혼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얼굴을 가리사 거기서 나오는 빛마저 없을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으며 견디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주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비록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천국 믿음입니다.

여호와와는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

해 그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는 자신의 작품인 그의 백성들이 받는 은혜 속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 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룰" 때, 여호와와는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이 덕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문고는 그 줄을 뿜지 않으면 열매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짜지 않으면 포도즙의 단 맛을 전혀 즐길 수 없습니다. 계피를 눌러 뺀지 않은

면 그 좋은 계피 향내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숲이 완전히 타지 않으면 불의 따스한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의 지혜와 능력은 그가 만든 공룡의 그릇들이 그들에게 허용된 시련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또한 장차 나타날 즐거움을 더 즐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빛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그곳에 반드시 그림자를 그려 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저주와 이 땅의 슬픔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래도 천국에서 그렇게 지극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화평은 싸움 후에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휴식은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 더욱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히 묵상해 본 본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위로가 될 만한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Colossians 3:13 NIV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one another if any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someone.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 bear with: ~을 참을성 있게 대하다
- forgive: 용서하다
- forgive의 동사변화: forgive - forgive - forgiven
- grievance: 불만, 불평
- as (접속사):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 대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참을성 있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Psalm 62:1 NIV
Truly my soul finds rest in God; my salvation comes from him.

- truly: 진정, 정말로
- rest: 안식(安息)
- find: 발견하다
- salvation: 구원
- come from: ~으로부터 오다

시편 62편 1절
진정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니,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바이블지식IN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혹은 "불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죄를 지으라고 꾀거나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저항하는 것은 사탄이 최대의 "시험하는 자"(마태복음 4:3; 데살로니가 전서 3:6)로서 에덴동산에서부터 인류를 유혹한 자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창세기 3; 요한일서 3:8). 그러나 결국 우리는 구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지상을 기어 다니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일상입니다(베드로전서 5:8).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유혹에 능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고린도전서 10:13). 진실로 우리 모두가 나쁜 유혹

을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에서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히브리서 4:15). 모든 시험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죄된 행동을 해 결국 "죄를 낳도록" 허용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 본성입니다(야고보서 1:15).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씨름하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갈라디아서 5:16).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어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수록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더 쉬

워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었고(마태복음 4:4-11), 이에 결국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그 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시편 119:97-98).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도도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마가복음 14:38). 또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마태복음 6:13; 누가복음 11:4). 그러나 시험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

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로마서 4:21).

죄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수난을 겪으셨습니다(로마서 5:8). 우리가 지었거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박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탄의 세속적 유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차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식에 따라 우리의 약함이 공략당하기 쉬운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와

된 욕망을 자극하는 이미지와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이 때로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6:41). 바울은 우리가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서 "피하라"고 경고합니다(고린도전서 6:18; 디모데전서 6:11; 디모데후서 2:22). 기억하십시오. "시험하는 자"는 합리화의 귀재이며,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죄된 행동을 어떻게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에베소서 6).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사탄의 어떠한 술수보다도 강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는 유혹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삶의 주인공을 나타낼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가트케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업,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강지윤 칼럼 **생명을 구하는 포옹**



몇 년 전 널리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이야기는 또다시 들어도 눈물나는 감동이 되살아 납니다.

태어난지 며칠 안 된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아이는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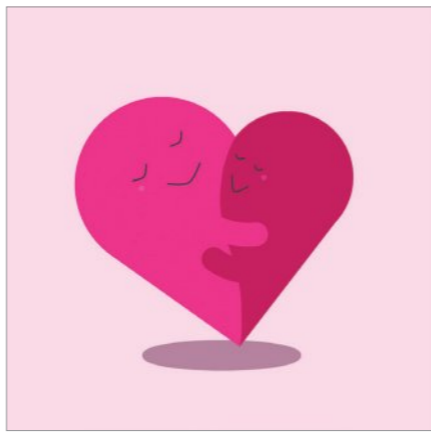
그 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병원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담당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엄마 자궁에서처럼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 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이 쌍둥이의 사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이 붙여

졌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동생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십 여 년이 흐른 지금, 두 아이 카이리와 브리엘은 간호사와 수의사를 꿈꾸는 소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가슴을 적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몸에 익숙한 필수 영양분과도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포옹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부모는 따뜻한 포옹과 스킨십을 필요로 하는 아기를 방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결핍된 정서로 인해 아기의 정서를 채우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포옹에 결핍된 상처입은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몸에 익은 마음을 담은 포옹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대감과 비난 대신에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의미의 포옹, 그것이 우울하고



병든 이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치료제일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도 엄마의 손길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처입은 아가 오면 엄마를 오게 해서 어루만져 주게 합니다. 그 엄마도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마의 포옹은 자녀와 엄마 모두를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치료의 자원과 도구로 마음을 가득 담은 포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세상 한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막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미움과 분노로 타오르는 눈동자를 부드럽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면, 우리를 향해 온 가슴을 열고 기다리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형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대생 80%가 '예뻐진다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선물로 성형수술을 해 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 뿐 아니라 50-60대 여성들도 젊어 보이고 싶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 이렇게 성행하면서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세기를 넘는 미인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녀는 당시 섹시 심벌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실패와 대통령과의 스캔들로 사생활이 불행했고, 우울증에 시달

리다가 약물 중독에 빠져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졌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가졌고, 돈도 많은 데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행복과 불행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여기고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녀는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마음에는 깊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고 얼굴도 울퉁불퉁했으며 코는 찌그러졌고 두 눈은 툭 튀어나온 불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리와 팔이 길다고 '고릴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도 사춘기 시절에 못생긴 외모 때문에 심한 열등의식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등의식을 이겨내고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가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정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도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긴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한때 관상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얼굴에는 부귀가 보이지 않고

은통 흉하고 천한 모습만 비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책에서 '얼굴보다는 몸이,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글을 읽고 관상학에 대한 관심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사이신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구 선생은 얼굴이 흉하게 생겼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생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기억할 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모를 가꾸기보다 마음을 가꾸십시오. 마음속에 쌓이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 불행하고 우울한 마음들을 날마다 씻어 내십시오. 잘 가꾸고 다듬어진 마음에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김성광 목사

기독교의 종말론

본지는 [묵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Pixabay

흔히 종말론은 종말,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 마지막 행동을 다룬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말론이 단지 이것만을 뜻한다면, 우리는 종말론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중략)

언제나 마지막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을 그르친다. 만일 종말론이 모든 문제의 종교적 "최후해결"에 불과하고, 따라서 마지막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종말론은 매우 편안하지 못한 일종의 신학적 독선이거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일련의 묵시사상적 억지 이론가들이 행하는 바와 같은 심리학적 테러리즘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러한

묵시사상적 "마지막 해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의 테마는 "종말"(혹은 "마지막"-역자주)이 아니라, 모든 사물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회상함에서 비롯된 희망이요, 그럼으로써 살인적인 종말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말 - 그것은 언제나 참된 시작이었다"(Ernst Bloch).

기독교의 종말론은 모든 인격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에 있어서 마지막 안에 - 시작이 있다는 이 그리스도론적 모델을 따른다.

윌리엄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대한기독교서회 P14-15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당신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이영석 정형외과 전문의 지음
김우재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어깨 통증 완치설명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하는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 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샘물 위기를 기회로

사도행전 11:19-21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너무 커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위기는 인류문화와 문명을 흥하게 하는 도전(challeng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위기란 위기에 반응(response)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위기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은 약한 위기에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전혀 없어도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쓴 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는 말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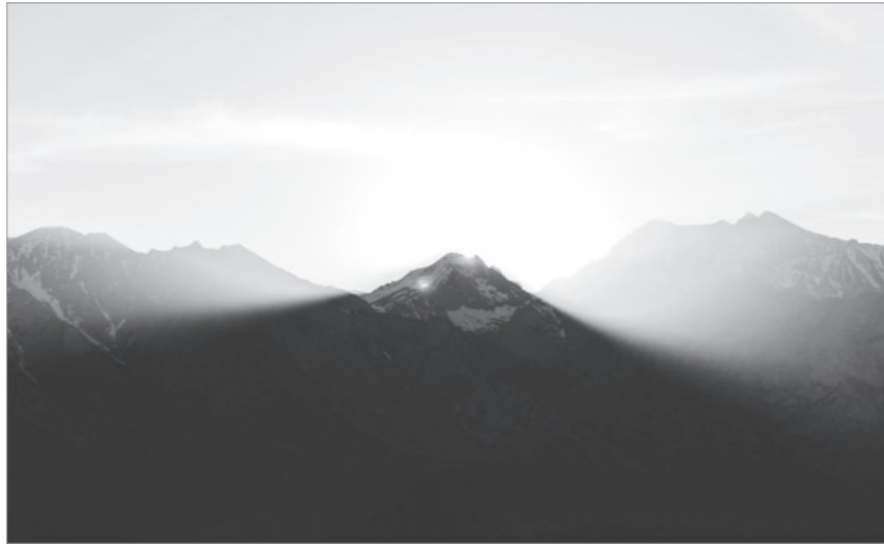
북해에서 청어 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북해로부터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한 모습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아무리 관심을 쓰고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때쯤이면, 청어들은 벌써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재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 물었다니, 잡은 청어를 보관하는 통에 다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 둔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러면 통 속의 청어들은 메기에 갇혀 먹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기 바빠서 죽을 겨를이 없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명한 어부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두기 위해서 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배척과 탄압의 위기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 또는 스테반과 빌립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었고, 안디옥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주역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



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본토출생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들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등의 인물에서 점차 빌립과 스테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로 주연인물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연인물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위기는 6장에 나오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과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간에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본토출생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외국태생의 디아스포

라 과부들을 소홀히 대접한데서 불평이 생겨났고, 그래서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출신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아 교회 업무를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두세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된 사울과 스테반이 부딪힌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였습니다. 이곳에 출입했던 스테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 사울은 스테반을 이단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이단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앞장을 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을 돌로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 시리아까지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겨우러졌고,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독교 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이후 박해를 피해서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19-21절을 보면, 이들이 페니키아와 안디옥과 키프로스까지 가서 기독교복음을 전파하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선교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교회가 탄생된 것도 이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으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바울 일행은 외국의 선교지에서 같은 민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할 때마다 그곳 도시들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흑암을 바꾸어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을 바꾸어 질서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바꾸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기를 바꾸어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에, 대학에, 공장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기마다 기회로 활용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향유옥합

위는 프랑스 예술가 폴 고갱의 작품이다.

유화로 그려졌으며 크기는 139 cm(세로) x 375 cm(가로) 1897?1898에 제작된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다.

고갱은 이 작품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적어 넣었다.

D' ou Venons Nous /
Que Sommes Nous /
Ou Allons Nous

이 말의 뜻은 이렇다.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는 고갱이 타이티로 돌아와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온 존재의 낯설음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만큼 삶의 깊이가 결정되고 삶의 깊이 만큼 질문이 나온다.

인생의 답이란 곧 구원이야 한다.

안타까움은 고갱도, 오늘날 많은 영혼들도 구원으로서의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갱은 자살로서

이에 대하여 답하였다.

프란시스 웨퍼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은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영성의 길이란 참된 질문에 구원의 답을 얻는 것이다.

한 신앙인에게 있어선 예수는 답이며 구원이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낯선 삶에서 나온 질문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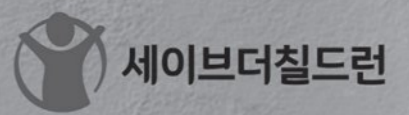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기록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아동은 최소 147명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이 아이들의 이야기 곁에 함께해 주세요.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 바로가기



전도사의 길, 화가의 길: 반 고흐

여행지에 목적을 가지게 될 때는 호기심이 크게 작용한다.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곳은 평소 좋아



한평우 목사

하는 화가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작품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그의 삶의 한 조각을 구체적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특히 생 레미(S. Remy)는 작고 예쁜 도시로 1889년에 반 고흐가 발작을 일으켜 1년 동안 입원한 병원이 지금도 남아 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을 뿐 옛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그 당시는 병원 시설이 열악했는지, 입원했던 환자를 다른 기사를 보니 환자의 양팔과 두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묶은 사진이 남아 있다. 그 시절에는 정신질환으로 주변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자를 다른 방법으로 다루기 힘들었을 것이다.

병원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방에 고흐가 사용하던 개인용 침대가 쓸쓸하게 맞이한다.

침대 곁에는 허름하고 작은 사물함이 놓여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붙은했던 화가 반 고흐가 머물던 방이라고 한다. 이 방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해바라기>나, <사이프러스 나무>, <레미 병원>, <시에스타> 등 많은 작품을 마무리했을 테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말이다. 사람은 종종 환경 탓을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람의 위대한 점이라.

프로방스는 목가적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림들이 태동하였나 보다. 그가 그린 그림의 배경을 따라 인쇄된 그림을 현장에 전시해 놓았는데, 배경이 된 야트막한 산, 그리고 감람나무가 늘어진 밭,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 등이 지금도 백 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듯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고흐가 없다는 것뿐.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 지고, 결국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화가에게 있어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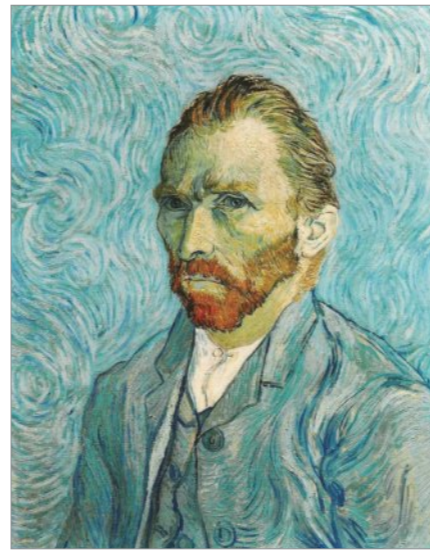
이 지방은 건축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서 집들이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여행객이 고흐가 살았던 시대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다행스럽기만 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화가 반 고흐를 좋아한다. 이유는, 그가 가난 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자신도 전도사로 탄광촌에서 일정 기간 사역했었기에 동질적식과 함께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 그를 만난다면, "목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라고 인사할 것 같다. 그는 폭포수 같은 열정의 소유자였기에 그 정열로 목회도 잘했을 것이라고, 그를 이해하는 분들은 말한다. 하

지만 그는 탄광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냉대를 당하고 그 일을 접어야 했다. 그러던 차에 그는 '그림'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돈이 없어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에 늘 외톨이였고 그로 인한 무시와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제자만을 인정하고 돌보려 하기 때문이다.

피카소처럼 생전에 유명세로 명성과 부를 누렸던 사람도 있지만, 반 고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후원한 오직 한 사람, 동생 '테오'만이 형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을 뿐이다. 동생 테오는 파리의 화방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대로 형에게 보냈다. 동생은 변함없이 형을 격려했고,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데 형에게 항상 용기를 주었다. 테오야말로 그림이 팔리지 않아 수없이 좌절하는 고흐에게,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동생이 매월 보내주는 돈은 고흐를 좌절감으로 피 말리게 했다. 동생이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내주는 돈이 같은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가 조카에게 송금하면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편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테오는 형에게 송금하면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형이기에, 또 형이 그림을 포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아는 고흐는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는



미안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나보다 재능이 많으니 화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동생 테오를 간곡하게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사람 모두 가난한 화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흐가 평생 그린 그림은 수백 점인데 팔린 것은 고작 대충 한 점뿐이었다. 고흐는 커피를 마시고 커피값을 내는 대신 스케치를 해주기도 했다. 만년에는 자신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림을 선물했다. 의사는 고흐로부터 받은 그림을 잠시 다락방에 보관했다가 답장의 여담이문으로 사용했다. 또한, 그가 입원했던 생 레미의 정신병원 의사들이 고흐가 그곳을 떠나며 남긴 그림 몇 점을 사격 연습용 과녁으로 사용했다는 글을 읽고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고

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동생의 권유로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린 '오베르 성당'이 있고, 성당을 왼편으로 끼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린 '까마귀 나는 밀밭'이 지금도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고흐가 자살한 곳이라 그런지 지금도 음습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만 같다.

거기서 내려와 그가 마지막 7개월을 살았던 작은 다락방에 들어가 보았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달을 정도로 천장이 낮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방이었다. 돈이 없었던 그가 가장 싼 방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이 방에 거거하던 중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그의 죽음은 작은 시골 마을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다. 성당에서는 그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장례를 거부했기에 가세 박사의 주선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가 죽은 지 6개월 후, 누구보다 그를 이해하고 용기를 주었던 동생 테오도 죽었다. 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테오의 아내는 죽은 남편이 고흐의 곁에 묻힐 수 있게 배려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에 형제는 의젓게 나란히 묻혀 있다. 묘지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민낯으로 행인을 맞이한다.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 해서, 그가 죽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1990년 5월 15일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가세 박사의 초상>이 무려 8,250만 달러에 한 일본인에게 팔렸다. 그 그림이 고흐 생전에 단돈 100달러에 팔렸더라면, 그는 허기진 배를 쓸어내리며 오베르의 밀밭으로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아마 그는 세상의 몰이해를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라. 살아있을 때 그의 천재성이 조금만 인정받았더라면 그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약 더 살았다면 그의 그림은 놀라운 깊이를 더해갔을 것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며 깨우는 역자들이 수없이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입속에서 자꾸 맴돈다. 그의 충만한 열정이 온통 하나님께로 향하는 듯 고흐의 그림 속 사이프러스 나무도 모두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그의 간절한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드리듯. 그는 겨우 10년 동안 그린 그림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껏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데, 그보다 세 배도 더 되는 삼십몇 년의 외길을 고집하는 나는 남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래 산다는 것이 이처럼 무의미하게 여겨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찬양한표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소풍, 지선

합창지휘자의 조건



김경희

- 1) 음악적 아이디어를 손으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Cue, cut-off, gesture, Dynamics, Mood, Articulation 등 포함)
- 2) 다양한 레퍼토리와 시대별 연주 양식에 대한 이해 (많은 지휘 경험과 다양한 레퍼토리가 훌륭한 음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 3) 뛰어난 음악성(musicianship) - 시창, 청음, 리듬적 감각

- 4) 합창발성에 대한 지식, 자신만의 소리 (Tone color)
- 5) 각종 언어에 대한 지식과 시에 대한 이해 (라, 영, 이, 독, 프)- 가사를 읽고 가사의 뉘앙스도 알아야 함
- 6) 피아노 연주실력
- 7) 인간성 (personality) - 리더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
- 8) 지휘에 대한 열정 (enthusiasm) + 에너지 수반(육체적, 정신적)
- 9) 프로그램 구성에 탁월한 재능 - 레퍼토리 고르고 구성할 때, 각 스타이

지 별 음악회 구성 등 신중히 고려, 연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 10) 음악 외 행정력, 기획력 등의 능력 필요 (단원관리)
- 11) 유머감각 (그러나 진정한 카리스마는 음악에서 비롯됨)
- 12) 악기에 대한 지식- 악기의 특성,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이해 필요
- 13) 음악 분석과 해석 능력 - 작곡자의 의도 파악하고 가르키는 것이 지휘자의 임무.
- 14) 편곡의 능력 (파트조정)

15) 결단력 필요.

지휘자는 발성 전문가로서 역할과 음악을 만드는 역할, 행정가, 배우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예술적이면서도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지휘자란 본인이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봉사하는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기바라며 단원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덕목이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Dream, Universe & Love

2024. 10. 25.(금) — 2025. 2. 28.(금)

송파구 (사)잠실관광특구협의회 LOTTE WORLD TOWER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UL
MY SOUL

모두와 동행하는 서울,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생계돌봄

서울디딤돌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주거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2)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



의료건강

병원 안심 동행

병원 방문부터 진료, 귀가까지
아플 때 힘이 되는 서울!



교육문화

서울런 (Seoul Learn)

공부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교육 걱정 없는 서울!



안전

안심벨 '헬프미'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범죄와 사고 걱정 없는 서울!



사회통합

약자동행 공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한울타리,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

스마트 서울뷰에서
[약자동행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자와의
도행

